주체사상원리해설 2

인류사회를 밝히는 주체의 홰불



인류사회를 밝히는 주체의 해불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 103(2014)년

《주체사상은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힌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의 근본원리가 새롭게 천명되였습니다.》

김 정 일

머 리 말

오늘 세계에는 자연과 함께 사회라는 거대한 령역이 있다.

세계력사에 자연과 사회가 병존하여 온지도 어언 수백만년 돌이켜보면 인류는 사회속에서 횡포한 자연을 길들이고 복종시키면서 자신들의 삶을 련면히 이어왔다.

사회는 인간에게 있어서 한시도 떠날수 없는 삶의 터전, 생활의 활무대이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고 새가 공기를 떠나 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다.

인간의 생이 시작되고 이어주는 삶의 터전이 바로 사회이기에 우리는 사회를 귀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사회를 밝히는 밝은 빛으로 그것을 해부해보아야 한다.

집안이 밝아야 가정일을 잘해나갈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인류의 지향에 맞게 잘 가꾸어나가자면 그 면모를 환히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리론의 빛이 있어야 한다.

일찌기 인류사회의 초창기로부터 오랜 세월 사회와 인류의 앞길을 밝히고저 수많은 유명무명의 사상가들이

력사무대에 나타나 제나름대로의 사상과 리론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류는 자기자신을 력사의 주인으로 당당히 내세워주는 참다운 사상을 찾지 못하고있었다.

20세기가 밝아오면서 세계에는 주체로 불리우는 새로운 철학사상이 등장하였다.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사상리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은 인류가 받아안은 새로운 홰불이였다. 불세출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높이 추켜드신 이 주체의 광휘로운 홰불은 오늘 자연과 인간뿐아니라 사회도 새롭게 그리고 밝게 비쳐주며 인류사회령역을 이채롭게 하고있으며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 더 큰 박차를 가해주고있다.

주체의 광휘로운 해발이 있어 자연과 사회, 인간에 대한 모든 원리들이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인류사상사에 새롭게 출현하게 되였다.

이 책에서는 주체사상의 새로운 사회력사원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독자들은 이 글을 읽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이 사는 사회의 면모와 그 변화발전과정 그리고 사회력사를 주도해나가는 주인공이 누구이며 사회가 과연 어떤 길을 따라 전진하는가 하는데 대하여 알게 될것이다.

차　　례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서만 옳게 파악할수 있습니다. 사회는 사람들과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재부와 그것을 결합시키는 사회적관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김정일

1. 열려지는 인간사회의 대문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사회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주고저 사회의 대문을 열어보려고 한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사회의 본질, 사회력사의 주체, 사회적운동의 본질적특성의 체계로 구성되여있다. 이 장에서는 사회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 장의 체계를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산다》와 《력사적으로 본 사회류형들》이라는 2가지 체계로 구성하였다.

1)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산다

특출한 세계적사변-사회의 출현

지금으로부터 200만년전 지구상에는 세계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사변이 일어났다.

그것은 어느 화산의 대폭발이나 대지진도 아니였고 지구와 다른 행성과의 파괴적인 충돌도 아니였다.

그것은 200억년이라는 태고연한 우주자연의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사변, 인류사회의 출현이였다.

인류의 탄생과 사회의 출현,

바로 이것으로 하여 세계는 마침내 구태의연한 자기의 천연적인 더딘 걸음을 멈추고 자연과 사회의 호상관

계속에서 걸음을 같이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사회는 출현하자마자 자기의 특출한 위력을 자연앞에 뚜렷이 과시하면서 억년 드놀지 않던 영구동토대와도 같던 자연의 세계에 과감히 진출하였고 오래동안 잠자고있던 미개척지들을 진동시키면서 이르는 곳마다에 자기의 독특한 흔적들을 력력히 새기여나갔다.

사회령역의 급속한 확대로 오늘날 광활한 세계무대에서는 무변광대한 우주자연의 리용과 변혁에서뿐아니라 인류의 생활과 운명에서도 그야말로 새롭고도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고있다.

자연과 사회를 포괄하는 광대한 세계의 변화발전의 주인은 다름아닌 인간이다. 바로 이러한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며 활동함으로 하여 세계는 인간을 주인으로 하는 인간의 세계로 전환되리라는것만은 의심할바 없다.

인간을 주인으로 하는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여 잘 알자면 세계의 특출한 령역으로서의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모여사는 《집》-사회적집단

우리는 이 부분을 우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미전에 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사회현상에 대하여 명철하게 통찰

하시고 1992년 1월 3일에 발표하신 로작 《사회주의건설의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에서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정식화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재부를 가지고 사회적관계로 결합되여 생활하는 집단이 바로 사회입니다.》

짧고도 알기 쉬운 문구속에 사회의 본질을 집약적으로 함축하신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다.

사회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

보건대 이 명제는 인류력사 수백만년동안 그 어느 철학가, 사상가, 정치가들도 내리지 못하였던 사회에 대한 처음으로 되는 과학적정식화이다.

그이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는 사람들이 모여 살며 활동하는 집단이다.

이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수가 없다.

사회와 동떨어진 인간은 식물에 비유하면 락엽과 같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을 이루어야만 인간다운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 살수 있으며 자기의 지혜와 힘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거창한 세계를 자기의 요구대로 지배해나갈수 있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로서 자기의 생존과 발전을 이룩하는 길은 오직 서로 뭉쳐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는데 있다. 이것이 동물과 같은 다른 물질적존재들과는 다른 사람의 고유한 생존방식이다.

물론 자연계에도 무리를 이루고 사는 동물들이 적지 않다. 가령 원숭이도 무리를 지어 살며 개미나 꿀벌들도 수천수만마리씩 무리를 지어 살고있다. 또 어떤 동물들은 사람의 집단을 방불케 할 정도로 먹이사냥을 《집단적》으로 하며 위험이 닥쳐올 때에는 자기 무리에 《신호》를 하며 일정한 《질서》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나 사람의 집단은 동물의 무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동물의 무리가 맹목적으로 결합된 개체들의 단순한 집합이라면 사람의 집단은 일정한 생활상 요구와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이루어진 목적의식적인 결합, 조직적인 결합이다.

바로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관계로 결합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기본단위가 바로 사회적집단이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강조할것이 있다. 그것은 사회가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하여 사회에는 사람만이 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사회에는 사람외에도 사회적재부, 사회적관계가 있다.

사람은 맨몸으로 그리고 고립되여서는 살아가지 못한

다. 사람이 살아가자면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사회적재부가 있어야 하며 호상관계속에서 서로 생산물을 교환하는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공정하나만을 놓고보자.

자동차나 배, 비행기를 만드는 생산공정을 보면 여기에는 각종 금속재료들과 화학재료를 비롯하여 기중기, 로보트, 콤퓨터와 같은 생산도구들이 리용되며 설계가, 공정기사, 제작공 등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생산하나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국가정치활동도 그렇고 문화예술활동도 다 이러한 본새로 진행된다.

실지 사회현실이 이러하기때문에 주체사상은 사회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도 있다고 말하게 되는것이다. 사회적재부는 사람들이 창조하여 리용하는 물질문화적수단이라면 사회적관계는 사회생활과정에 맺어지는 사람들사이의 관계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면 이 세가지 구성부분들이 동등하게 사회의 존재와발전에 작용하는가 하는것이다.

이 세 요소들이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차지하는 지위라든가 역할에서는 크게 차이나게 된다. 여기에는 보다 중심적인 지위에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구성부분, 주인이 있다. 그러면 사회의 3 가지 구성부분들중 사회의 모든것을 통솔

하고 이끌어나가는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은 사람

사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부분들은 태양계에서의 천체들의 운동에서처럼 균등한 력학적관계를 이루고있지도 않으며 동물의 먹이사슬관계처럼 자연발생적인 생존관계를 이루고 있지도 않다.

자연과 달리 사회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주인이 있으며 그에 의하여 모든 사회적사물과 현상들이 련계를 이루고 변화발전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는 사람들과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재부와 그것을 결합시키는 사회적관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주체사상은 두가지 측면에서 사람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근거를 들고있다.

첫째로는 사회가 사람을 첫째가는 구성요소로 하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사람을 떠나서는 사회의 발생도, 그 존재와 발전도 있을수 없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고증된 세계고고학의 자료들에 의하면 사람의 발생과 사회의 발생은 그 시기를 같이하였다. 사회의 발생은 사람과 뗄수 없이 련결되여

있다.

이런데로부터 주체사상은 사회적재부나 사회적재부가 아니라 사람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말하게 되는것이다.

둘째로는 사람이 사회의 모든 변화발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에는 이미 수많은 재부들이 축적되였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사회와 인간의 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다. 그렇지만 사회적재부나 사회적관계는 사람이 출현한 다음에야 비로소 만들어진 인간의 창조물로서 그것의 창조와 변화는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다.

지금까지 창조된 사회적재부는 실로 방대하며 그것이 노는 역할은 계속 커가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사회에서 사람이 노는 역할이 결코 감소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일부 사람들이 정보산업시대인 오늘날 콤퓨터가 없이는 생산이 이루어질수 없다는 하나의 사실만을 념두에 두고 사람을 무시하고 정보수단의 역할을 과장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다. 사회의 모든것들은 종국적으로는 사람의 지능과 역할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사회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사회관계는 복잡하며 그것이 인간의 운명과 그의 생활에 그리고 사회적재부의 증가에 주는 영향은 적지 않

다. 따라서 사회의 존재와 발전에서 사회적관계를 결코 무시할수는 없다. 하다면 사회적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사람과의 호상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를 상정시켜 볼 때 어떤 해답이 가능한가 하는것이다.

사회적관계가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있어도 그 수많은 관계들은 좁은 범위에서는 사람들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넓은 범위에서는 나라와 민족들의 호상관계를 통하여, 다시말하여 사람, 사회적집단들을 통하여 맺어지고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오늘날 인터네트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터네트망이 세계적규모에서 대대적으로 형성되여 사람들사이, 국가들사이련계가 보다 밀접해지고있는것을 비롯하여 각이한 현대적수단들이 사회적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편리하게 하는데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있지만 그것들자체도 다 인간에 의하여 조종되고있다. 인간을 떠나서는 그것은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무기력한 구조체에 불과하다.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회적재부를 만들어 리용하는것도 사람이고 모든 사회적관계를 이루고 변화시키는것도 다름아닌 사람일진대 어찌 사람을 사회의 창조자, 관리자, 리용자라고 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사회의 주인은 다름아닌 사람이다.

2) 력사를 통하여 본 사회류형들

인간이 태여나서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로년기를 거치는것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각이한 발전단계의 사회제도를 거쳐왔다.

인류사회가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출현한 사회류형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여기에는 력사박물관이나 통속적인 력사교과서들에서나 찾아볼수 있는 이미 쇠퇴몰락한 사회도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존속하면서 인류생활과 세계변화발전에 이러저러한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사회도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발전을 심히 저애한 반동적이며 비인간적인 사회가 있었는가 하면 오랜기간 지속된 사회도 있었다.

인류는 여러가지 류형의 사회를 만들어놓고 그속에서 생활해오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고 자주적인 삶을 누리려 창조와 투쟁의 길에 나서기도 하였다. 사회를 변화시켜나가는 헐치 않은 력사과정에 인간은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 사회는 변혁적인 투쟁으로 뒤집어엎기도 하였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진보적인류의 줄기찬 투쟁으로 력사의 흐름이 퇴보의 방향으로가 아니라 진보와 변혁의 방향으로 이어졌다는것은 두말할나위도 없다.

그러면 곡절많은 인류력사발전과정에서 인간이 처음

으로 만들어낸 사회는 어떤 사회였으며 인간의 리상을 실현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에 대하여 력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하자.

첫 인류사회- 원시공동체사회

원시공동체사회는 인간이 세계에 출현하면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첫 인류사회였다.

원시공동체사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만년전에 발생하여 5000년전까지 존재하였다.

원시공동체사회의 출현, 이것은 영원무한대한 물질세계의 발전에서 근본적전환이였으며 현실세계발전의 새로운 력사, 위대한 인간활동의 새 시대의 도래였다.

원시공동체사회가 출현하기이전에는 그 어떤 인간사회도 없었다. 오직 있었다면 고사리와 같은 식물이나 공룡과 같은 무의식적인 생물과 무생물만이 지배하던 천연자연의 세계뿐이였다.

세계고고학자들과 연구사들의 오래동안의 연구결과에 원시공동체사회에 대한 비교적 과학적인 결론이 오늘날에 이루어졌다.

원시공동체사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원시적평등의 관계를 맺고 공동생활을 하던 사회이다.

류인원의 단계를 갓 벗어난 사람들은 이 기간에 원인, 고인, 신인단계를 거치였으며 원시무리를 이룬 이후 모계

씨족사회와 부계씨족사회라고 하는 씨족공동체를 단위로 하여 살았다.

사람들의 지위는 오늘날에 보는바와 같은 계급이나 계층으로 구분되여 있지 않았으며 미숙하고 소박한 형태에서나마 평등하였다.

이 사회에는 씨족평의회라는 원시적인 정치조직이 있었으며 씨족장, 추장, 군사령관들이 있었다.

생산도구는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등을 거쳐 발전한 석기였고 후에는 청동기였다.

사람들은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 같이 일하고 생산된 물건을 공동으로 나누어 소비하였다. 물론 원시사회에서의 생산수단과 생산물은 보잘것없었으나 그것이 공동으로 생산되고 분배되고 소비되였다는 점에서 계급사회와 구별된다.

사람들의 의식은 토테미즘, 아니미즘적인 원시적종교의식에 머물러있었고 과학과 문자도 없었으며 사회성원전체가 무지몽매하였다.

원시사회의 말기에 이르러 씨족사회의 성원들은 적대되는 계급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씨족평의회의 우두머리들은 점차적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정치적지휘권을 특권으로 전환시키고 세습화하였으며 그것을 리용하여 다른 씨족성원들의 리익을 침해하고 그들과 적대되는 세력으로 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생

산력이 발전하는데 따라 사람들이 소비하고 남은 생산물이 생기게 되였으며 이것을 독차지하고 다른 씨족성원들을 착취하는데 리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였다.

원시사회말기에 계급이 발생하는것과 함께 국가도 발생하였다.

국가는 정치적, 경제적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지위를 합법화하고 공고한것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정치조직으로서 출현하였다. 그리하여 원시사회는 착취사회로 이행하게 되였다.

계급적대립의 첫 산물-노예소유자사회

노예소유자사회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 노예에 대한 노예주계급의 완전소유에 기초한 첫 착취사회였다.

이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계급이 처음으로 생겨났으며 계급들사이의 차이와 모순과 갈등, 대립이 이루어져 지배하고 착취하는 계급과 지배받고 착취받는 계급이 형성되였다.

그 구성을 보면 기본계급은 노예와 노예주였으며 그밖에 일부 수공업자들과 소농민들이 있었다.

노예주계급은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국가주권과 토지를 비롯한 기본생산수단, 지어 노예까지 완전한 소유물로 만들고 노예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당시 이 사회에서 기본근로대중을 이루고있던 노예들

은 압박받고 천대받는 피압박, 피착취계급이였으며 노예주에 의해 매매되고 처분되는 《말하는 도구》에 불과하였다.

고대로마법전의 어느 한 조항에 있는것처럼 《노예는 동물이며 물건》이였다.

당시 노예들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몇《마리》로 계산되였고 생명없는 다른 상품처럼 분여되거나 매매되였다.

노예들의 처지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고대로마시기 로마인들이 농장의 도구를 3 가지로 분류한데서 명백하게 나타나있다.

그들은 농장의 도구를 ① 명백히 말하는것, ② 애매하게 말하는것, ③ 전혀 말하지 못하는것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에서 첫번째의 경우가 다름아닌 노예인것이다.

노예들은 주인이 죽거나 또는 큰 궁전을 건설할 때에는 희생물이 되여 주인의 묘안에나 건물의 초석옆에 생매장당하였다. 한편 수공업자들과 소농민들의 처지도 노예들과 다를바 없었다. 그들은 노예소유자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았으며 날로 령락되여 노예로 전락되였다.

노예소유자사회에서는 노예소유자들의 인신적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예들의 투쟁이 세차게 일어났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회는 붕괴되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BC 74 년-71 년 로마에서 일어난 스파르타쿠스노예폭동을 비롯한 노예폭동들은 노예주계

급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노예제도 그자체를 밑뿌리채 뒤흔들어 놓았다.

노예소유자사회가 붕괴된 이후에 나온 착취사회는 봉건사회였다.

신분의 사회-봉건사회

봉건사회는 봉건지주, 령주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농노, 농민들을 가혹하게 억압하고 착취하던 사회였다.

봉건사회가 존속한 시기는 조선에서 BC 3 세기 고구려의 확립으로부터 19 세기 중엽까지이며 서유럽에서는 5 세기 서로마제국의 붕괴로부터 17 세기 중엽 영국부르죠아혁명전까지이다.

봉건사회는 노예사회를 교체하여나온 다른 류형의 착취사회로서 이 사회에서는 노예사회에서와 달리 로골적인 지배와 착취형태가 아니라 신분이나 토지를 통한 보다 교활한간접적인 지배와 착취형태가 지배하였다.

봉건사회에서 봉건지배계급은 종교를 리용하여 농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 종교적환상이 전사회에 류포되였고 교회의 정신적독재가 지배하게 되였다.

후세사람들이 중세시기를 가리켜 《종교의 세기》라고 부르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봉건사회에서 모든 권력은 최고권력자인 황제나 국왕, 법왕에게 집중되여있었고 그들에 의하여 국가활동이 진행되였다.

봉건지배계급은 신분제도에 근로인민대중을 얽매여놓고 정치적으로 억압하였으며 모든 계층들은 각각 일정한 신분에 속하여 예속과 지배를 받았다.

봉건사회의 기본계급은 지주(봉건령주)와 농민이였으며 그밖에 수공업자, 상인들이 있었다.

봉건지주는 착취계급, 지배계급이였으며 농민은 피착취, 피지배계급이였다.

봉건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봉건지주계급의 억압과 착취는 신분제도에 의하여 합법화되여있었다.

봉건사회에서 지배계급-착취계급은 특권신분으로 되였고 피착취계급은 낮은 신분에 속하였다.

특권신분에 속한자들은 국가의 고급관리로 될수 있었고 조세와 부역으로부터 면제되고 죄를 범하는 경우에도 감형의 특권 등이 있었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대대로 착취와 억압, 천대와 멸시를 받아야 하였다. 이와 같이 신분제도의 기초에는 그 사회의 계급관계가 놓여있었다. 신분제도는 일단 확립된 다음 계급관계와는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세습적으로 유지되여왔다.

봉건사회에서 기본생산수단은 토지였으며 봉건지주와

령주들은 많은 토지를 장악하고 농노와 농민들의 로동과 로동생산물을 봉건지대의 형태로 착취하였다.

봉건사회에서도 인민대중은 결코 앉아서 죽음의 길을 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중국력사에서뿐아니라 세계력사에서 중세반봉건투쟁의 첫 서막으로 기록되여있는 BC 209 년에 일어난 중국 진시황봉건왕조를 반대하는 진승과 오광의 농민봉기로부터 시작하여 서방과 동방을 통털어 근 2000 년간이나 일어난 농민들의 반봉건투쟁에 의하여 절대적인듯이 보이던 봉건사회는 점차적으로 무너져갔다.

봉건사회 다음에 출현한 사회는 최후의 착취사회이며 력사상 가장 반동적인 사회인 자본주의사회이다.

황금과 자본의 활무대-자본주의사회

자본주의사회는 극소수 자본가계급이 국가주권과 모든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 인류의 마지막 착취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의 특징은 그것이 착취사회의 마지막 단계로서 중세기의 종교적 및 정치적환상에 의하여 은폐되고있던 착취를 공공연하고 파렴치하며 직접적이고 잔인한 착취로 바꾸어 놓고 사람의 인격적가치를 교환가치로 전환시킨 사회라는데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소수 착취계급은 온갖 권리와 자유,

향락을 다 누리고있지만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은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게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계급은 신분적예속에서 해방된 근로대중을 임금노예로 전락시켜 착취한다.

봉건사회의 신분을 대신하여 다른 하나의 착취도구로 등장한것이 황금과 자본이였다. 황금과 자본이 지배하는것으로 하여 《황금만능의 사회》로 불리우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사이의 신분관계는 교환관계로 전환되고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략탈이 로골적으로 공공연히 감행된다. 이 사회에서 아무런 생산수단도 가지지 못한 근로자들은 자본가계급에게 고용되여 자기의 로동력을 팔지 않으면 안된다.

《돈은 이 세상의 신이다.》이 말은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을 함축하여 한 말이다. 인간우에 돈을 올려놓고 돈이 정치도 하고 말도 하게 하는 거꾸로 된 사회, 돈에 비하면 인간은 서푼의 가치도 되지 않는 사회, 인간이 아니라 돈이 말을 하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사회였다.

일찌기 맑스가 말하였듯이 이 사회에서는 폭력적압박대신에 매수가 나타나고 검대신에 돈이 사회적권력의 가장 주되는 공간으로 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사

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무권리와 천대, 멸시를 강요당한다.

자본주의사회는 국내인민들뿐만아니라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고 략탈하는것을 본성으로 하는 가장 파렴치하고 횡포한 착취사회이다.

자본주의의 멸망은 필연적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사회가 철저히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가장 반동적인 사회이기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개인주의를 극소수 자본가계급의 탐욕으로 전환시키고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의 적대적모순을 극도에 달하게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리익이 최고의 리상과 목적으로 되고있으며 개인의 치부와 향락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날을 따라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더욱더 확대되고있다.

정보산업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로자간의 모순과 대립, 빈부의 차이와 실업위기, 경제공황과 불경기와 같은 자본주의사회의 불치의 병은 해결될수 없으며 자본의 착취적, 략탈적본성도 변할수 없다.

정보산업의 발전이 결코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모순과 대립을 해소할수는 없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시켜줄수 없다.

장성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날로 심화되는 자본주의사회의 불평등과 불균형, 반동성과 반인민성으로 하여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된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로 넘어가는것은 어길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의 멸망은 불가피하다. 자본주의멸망의 산물은 곧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인민들이 쟁취한 새로운 사회, 온갖 착취와 압박이 청산되는 인류력사상 가장 선진적인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향-사회주의 사회

지나온 사회의 전기간 사람들은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를 절절히 갈망하였다. 그 세기적념원은 수천년의 력사속에서 진통을 겪기만 하였지 언제한번 실현된적이 없었다.

그러던것이 드디여 인류의 리상이 실현되는 사회를 찾아내였으니 그것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봉건사회나 노예사회는 더욱더 아니였다.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사회, 사회주의사회였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상을 실현하는 유일한 사회는 바로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사회의 진면모에 대해서는 조선인민이 누리는 사회주의생활을 통하여 살펴볼수 있다.

세기를 두고 나라의 정치에서 소외되여 지난 기간 착취사회에서 노예의 운명만을 강요당하여오던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를 일떠세움으로써 비로소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정치무대에 등장하게 되였다.

1990년 4월에 선거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구성을 보면 로동자가 37% 협동농장원이 10.4% 기타 정치인, 과학문화예술인, 종교인 등으로 구성되였으며 녀성대의원이 20.1%를 차지하였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구성도 다를바 없었다.

과거의 머슴군, 품팔이군이 오늘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고 현직의 신발수리공, 온돌수리공, 상하수도관리공 등이 대의원으로 되였다. 이것은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할수 없었던 일이여서 오늘도 여전히 자본주의적착취와 식민지예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 인민대중에게는 그야말로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로 느껴질것이다.

하기에 이를 두고 서방의 한 정치가는 《북조선에 특권층이 있다면 그것은 인민》이라고 하였으며 프랑스의 한 교수는 조선인민이야말로 국사를 운운하는 《정치가》이고 존엄있는 《통치자》이고 공정한 《법관》이라고 하였다.

하다면 사회주의가 어떤 사회이기에 이렇듯 우월한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우선 사회주의사회가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는 사회이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이며 하나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지난 시기 노예로, 농노로 불리우며 버림받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근로하는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된다.

지나온 사회력사의 전기간에 언제한번 어느 사회에서도 사회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였던 인민대중이였다. 바로 그들이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여 착취계급의 유일한 독점물로 되여있던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자기 손에 직접 틀어쥐고 자신의 힘으로 관리운영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또한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입고 먹고 쓰고 살수 있는 권리와 그에 필요한 조건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으며 안정된 일자리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와 자신을 위한 창조적로동에

참가하고 로동의 결과에 따라 분배를 받을뿐아니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많은 혜택을 받고있다.

그 일단을 보여주는 사실을 우리는 조선의 주택실상을 통하여 알수 있다.

사회주의조선에서는 국가가 나라의 돈으로 살림집을 지어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있으며 협동농민들에게도 무상으로 문화주택을 지어주고있다.

1992년 봄에 탐방기자로서 조선을 자유취재하러 왔던 일본 아사히신붕의 한 기자는 어느날 평양 광복거리의 어느 한 집을 찾아들어가 그 집식구들에게 집이 몇㎡나 되는가고 물었다.

《한 80㎡될겁니다.》라는 집주인의 말을 들은 그는 미덥지 않아 제 손으로 집의 면적을 재여보고나서 《80㎡가 아니라 110㎡입니다! 110㎡!》라고 하면서 일본에서는 평범한 근로자가 이런 넓은 집에서 산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말로만 해서는 일본사람들이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 집의 매 방들을 돌아가며 사진기에 담았다.

하기에 세계의 저명한 종교인사들까지도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에 한해서는 선교가 필요없다, 조선은 성서의 교리들이 이미 실현된 나라, 예수가 꿈꾸던 리상사회라면서 《예덴동산이 아니라 주체의 락원이 지구우에 태여난 민중복락의 동산》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해 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진정한 인민의 사회, 가장 선진적인 사회이다.

《사회적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입니다.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사회적운동 그자체가 있을수 없으며 력사의 발전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습니다.》

김정일

2. 력사의 주인공을 찾아서

앞에서 우리는 사회의 본질과 력사적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사회제도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의 다음 부분에 해당되는 체계는 력사의 주체에 관한 부분이다.

이 장에서는 사회력사의 주인공, 주체가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하게 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게 된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라는것, 그리고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여야 비로소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는것이 이 장이야기의 중심내용으로 되여있다.

주체의 사회력사원리는 력사의 주체를 인민대중으로 보고 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노는 주체로서의 결정적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사회력사가 명실공히 주체의 력사, 인민대중의 력사로 되도록 하였다.

주체사상은 단순한 리론이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실천력을 가지고있어 리론의 한계를 뛰여넘어 20 세기를 일변하였고 동방의 나라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에 빛나게 구현되였다.

오늘 세계만방에 그 이름 높이 떨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이라는 찬란한 현실은 주체사상이 안아온 귀

중한 열매이다.

그러면 주체사상이 펼치는 인민대중의 력사는 무엇이며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1) 력사를 움직이는 인민

이민위천

사람들은 예로부터 하늘을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구원자》, 《구세주》로 숭배하여왔다.

고대인들은 하늘을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숭상하였고 봉건시기 종교신자들은 하늘숭배의식을 리용하여 종교교리를 체계화하고 합리화하였다.

착취사회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을 하늘의 계시를 받아 운명을 구원해주는 《천제》,《황제》로 자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력사의 위대한 존재, 전지전능한 운명의 구세주는 《하느님》도 아니였고 또 임금도 아니였다.

하늘을 믿는자는 그 누구이든 례외없이 무맥하기 그지없는 신자로 되여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고 착취계급에 의거한자는 공순한 노복으로 되여 불우한 운명을 마치였다.

그러면 사회와 력사를 개척하고 사람들의 운명을 구원해주는 하늘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는 없겠는가?

오늘 조선인민뿐아니라 세상사람들속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널리 애독되고있는 한 책이 있다.

그것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쓰신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이다.

오늘도 세상사람들속에서 《인류태양의 전서》이며 《조선혁명의 만년재부이며 혁명의 교과서》로 불리우고있는 회고록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여오신 항일혁명투쟁의 로정이 생동하게 서술되여있다.

주체 87(1998)년 6월까지 제1부 항일혁명편이 8개의 권으로 발행된 이 도서는 나오자마자 세상사람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발표된지 6 개월도 안되여 세계 60 여개 나라들에서 150 여개의 출판보도물들이 회고록의 구성체계와 장, 절들의 전문과 상세한 내용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으며 그것은 14 개어종으로 수십만부나 번역출판되였다. 외신들은 그 보급수에 있어서 《다른 도서들을 압도하여 단연 제1위를 기록》하였다고 전하였다.

회고록은 지난 20여년간 170여개 나라들에서 연구보급되였으며 수십개 나라에서 20여개 민족어로 출판되였다.

회고록이 세상사람들에게서 이렇듯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것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이민위천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생, 인민을 최고의 존재, 하늘과 갈

은 존재로 내세우시고 인민과 함께 헤쳐오신 인민존중의 한생이 감동깊은 사변들로 엮어져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

이 명구속에 있는 이민위천, 이 말은 그이께서 일찍부터 간직하시고 굳혀오신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이민위천이란 사람, 인민을 하늘과 같이 여긴다는 뜻이다. 오랜 옛날에 사람들은 하늘을 신비롭고 무한대한 힘을 가진 조물주, 천지만물의 주재자로 여겨왔다.

이민위천이라는 말은 결국 그 어떤 신비로운 존재나 힘이 아니라 바로 인민이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 혁명과 건설의 주인, 동력이라는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점에서 볼 때 그이께서 지니신 이민위천의 사상은 인민에 대한 관점과 립장의 최절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 사상을 근본바탕으로 한것으로 하여 주체사상은 명실공히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불멸의 혁명학설로, 인민에 대한 사랑과 존중사상의 최고정화로 되여

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주체사상의 모든 체계와 내용에는 **김일성**동지께서 한평생 좌우명으로 삼으신 이민위천의 사상이 그대로 구현되여있다.

그러면 그이께서 하늘로 떠받든 인민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가.

《도대체 인민이란 어떤 사람들이요?》

여기에 《인민》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해주는 조선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실자료가 있다.

조선인민이 일본제국주의의 군사적강점으로부터 갓 벗어나 해방되였을 때이다.

그때 해방된 조선에 어떤 사회를 세우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이전 쏘련과 미국이 공동조사단이라는것을 무어가지고 조선에 온적이 있었다.

조선에 머무르는 과정에 그 대표단은 조선에서의 새사회건설에 대한 인민들의 동향들을 《조사》하려고 하였다.

그 조사의 한 형식으로서 미국대표들과 조선사람들사이에 담화가 있었는데 이 담화에서 미국대표는 이른바 《미국식민주주의》에 대하여 일장 연설하였다. 그는 사람들앞에서 으시대며 미국사회가 인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풍부한 물질생활》을 보장해주는 《우월한 사회》라고 하면서 한참동안이나 력설하였다.

그의 요란스러운 말이 언제면 끝나겠는가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한 농민대표가 그에게 이렇게 따져물었다.

《당신들이 미국사회가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었소?》 그러자 미국대표는 얼굴이 벌개지며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갑작지르며 주춤주춤하기만 하는 그에게 농민대표는 련속 질문을 들이대였다.

《당신들의 법에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준다는 조항은 있소?》

그는 이 물음에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른바 세계앞에 만민평등법이라고 선언한 미국법이지만 남녀평등을 담보하는 조항은 이 법의 그어디에도 없었기때문이다. 그러자 농민대표는 이렇게 반문하였다.

《당신들이 미국사회가 인민을 위한 사회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로동자, 농민, 녀성들을 내놓고 도대체 인민이란 어떤 사람들이요?》 이 물음에 미국대표는 아예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가 대답을 못한것은 그에게서 《인민》이란 극소수 자본가들뿐이였기때문이다. 한편 농민대표가 말하는 인민이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포함한 광범한 계층을 념두에 둔것이였다. 미국대표가 가진 인민에 대한 리해와 농민대표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인민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해답을 찾을수가 있다.

주체사상에서는 인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1994년 11월 1일에 발표하신 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이란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이다.》

그 얼마나 명철한 정식화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속에서 진정한 인민은 근로하는 사람들이며 자주적요구를 가지고 창조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란 인민의 대렬에 들어설수 없다.

이것이 인민에 대한 주체사상의 관점이며 그 근저를 이루는 밑바탕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관점과 태도는 력사와 현실에도 맞으며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있는 주체사상의 근본립장의 발현이기도 하다.

그러면 인민대중의 구성부분을 살펴보자.

실지 사회현실에 들어가보면 인민대중을 가려보기는 결코 헐치 않다. 그것은 력사적으로 인민대중의 구성부분은 부단히 변하였기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착취사회에서의 인민대중의 구성과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그것의 구성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대체로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소수 착취자, 지배자

들에 의하여 억압받고 천대받는 광범한 계층들을 포괄한다. 그러나 착취와 압박이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계급과 계층이 인민대중으로 되게 된다.

그러면 끊임없이 변화되는 각이한 사회속에서, 수많은 사회적집단들로 이루어지는 사회속에서 누가 인민대중인가 하는것을 정확히 가려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것은 그 기본척도를 옳바로 정할 때 해결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는 장울화(1913. 1. 18－1937. 10. 27 중국의 국제주의전사, 자산가)에 대하여 회고하신 부분이 있다.

그이께서는 장울화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는 어려서부터 재산의 유무나 대소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 사람을 평가하는 나의 기준은 그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며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데 있었다. 부자라고 하더라도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으로 보았고 무산자라 하더라도 조국애와 인간애를 지니지 못한 사람이라면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보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을 평가하였다.》

그이의 말씀에 따르면 인민대중의 성원을 가르는 기본척도는 출신이 아니라 사상, 세계관으로 볼수 있다.

물론 사회마다 계급이 존재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인

민대중이라는 말에는 사회계급관계가 반영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계급적면만을 일면적으로 보아서는 안될것이다.

사람의 사상과 행동은 사회계급적처지의 영향만 받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혁명적인 영향을 받고 선진사상을 체득하면 사회계급적처지는 어떠하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다.

사상은 등대와 같다.

배가 등대에 의하여 자기의 길을 찾듯이 사람은 사상에 의하여 자기의 인생길을 찾는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착취계급에 속한 개별적사람들도 자주적인 사상을 가지고 혁명투쟁에 나서면 인민대중의 성원으로 될수 있으며 반대로 근로하는 계급의 출신이라고 하여도 사상적으로 변질되면 혁명과 인민의 배신자로, 적으로 굴러떨어질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인민대중의 성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본척도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계급적토대를 가졌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다음으로 인민대중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서의 사상은 어떤 사상일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력사적으로 사람들의 활동에 영향을 준 사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인민대중의 성원으로 되게 하는 사상은 우선 사회주의사상이다.

사회주의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자주적인 혁명사상이다.

사회주의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어느 계급의 출신이며 어디서 사는가 하는데 관계없이 인민대중의 당당한 한 성원으로 될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사상을 가진 사람만이 인민대중의 성원으로 될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사회주의사상과 함께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도 사람들을 인민대중의 한 성원으로 결합시키는 사상적기초로 된다.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주적인 사상으로서 이런 사상을 가지면 누구나 조국과 민족,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고 인민대중의 한 성원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참다운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도 사회성원들을 인민대중으로 겨합시키는 사상적기초로 된다.

인민은 력사의 주체

하늘로 떠받든 인민을 주체사상에서는 력사의 주체라

는 이름으로 정식화하고있다.

력사의 주체라는 말은 사회력사적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키고 떠밀어나가는 담당자를 의미한다.

력사의 주체, 담당자는 인민대중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 되는 근거는 두가지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우선 지난 시기에 일어난 모든 사회력사적변혁이 인민대중에 의하여 수행되였다는데 그 중요한 근거가 있다.

력사적으로 일어난 수많은 진보적사회변혁들인 노예해방투쟁, 반봉건투쟁, 사회주의혁명은 다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일어났다.

다음 근거는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힘을 가진 인민대중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것이 창조된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전에 늘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라고 하시면서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였으며 어려운 난국이 제기될 때마다 인민대중에게서 힘을 얻으시였고 그들에 의거하여 난국을 헤쳐나가시였다.

하기에 조선인민들은 그이를 가리켜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라고 높이 칭송하고 있으며 그이의 한생을 《인

민을 위한 한평생》이라고 부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민위천을 한평생 좌우명으로 삼으신바와 같이 이 세상에는 인민대중보다 더 큰 창조적지혜와 힘을 가진 존재는 없다.

이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할것이 있다.

그것은 인민대중만이 력사의 주체이며 개인은 력사의 주체라고 할수 없다는것이다. 그것은 개인들의 지혜와 힘 자체가 제한되여 있는것과 관련된다.

개인의 능력은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끝없이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원천은 아니다.

조선속담에《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듯이 개인만으로는 훌륭한 장군도, 영웅도, 과학자도 될수 없다.

반동적착취계급도 력사의 주체가 될수 없다.

그들은 력사의 주체가 아니라 력사의 반동이다.

그들은 력사를 퇴보시키고 창조물을 말살하는 장본인들이다.

력사적으로 보면 실지 그들이 저지른 침략전쟁에 의하여 수많은 사회적재부들이 파괴말살되였으며 전진하던 사회가 수십년 또는 수백년간이나 후퇴하기도 하였다.

력사를 거스르고 역행하였으며 수많은 귀중한 사회적재부들을 탕진하고 불살라버린 그들에게는 반동이라는 락인밖에 남을수가 없다.

일찌기 력사와 인민대중우에 군림하여 모든것을 좌우

지하였지만 종당에는 자신들의 운명조차 부지할수 없었던 고대로마의 독재자 케자르, 19 세기 프랑스의 황제 나뽈레옹, 20 세기 파쑈도이췰란드의 히틀러와 파쑈이딸리아의 무쏠리니 등이 다 그러하였다.

지금도 반동통치배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변자들을 내세워 쩍하면 자신들을 위대한 통치자요 뭐요 하지만 실지 그들에게는 사회를 개척할 힘도 의지도 없다. 있다면 세계를 지배하고 인민대중을 억압할 능력아닌 《능력》 그리고 치부욕이 있을뿐이다.

오늘도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무시하고 착취계급과 그 반동들을 찬양하는 부르죠아반동들의 허위선전은 계속되고있지만 력사의 진리앞에서 그 취약한 면모는 계속 드러나고있다.

2) 그들은 왜 비극적수난의 대상으로 되였는가

앞에서 우리는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라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실지 지나온 력사적현실을 돌이켜보게 되면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면서도 력사의 주체로서 응당한 지위와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지난날 인민대중이 착취사회에서 력사의 주체가 아니라 력사의 대상으로서 착취계급에 의하여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여왔다

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1982년 3월 31일에 발표하신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 근로인민대중은 소수 지배계급에 의하여 무권리를 강요당하고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으며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가 아니라 력사의 대상으로 되여온 비참상을 식민지를 강요당하였던 세계 수많은 여러 나라들에서의 인민들의 처지를 통하여 보게 될것이다. 아울러 여기에서 우리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참다운 주체, 자주적인 주체로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서도 인식하게 될것이다.

식민지민족의 설음

사람이 한생을 살아가느라면 별의별 설음을 다 겪기 마련이다. 그 모든 설음가운데서도 가장 큰 설음은 나라를 잃은 설음, 망국노가 되여 조국을 떠나는 설음이라고 할수 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 …

이 노래는 지난 20세기초 일제에 의하여 강요당한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살길을 찾아 타향으로 떠나는 그리운 님을 그리며 조선인민들이 부르던 《아리랑》이라는 노래이다.

세상에는 자기 조국을 떠나 이국땅에서 망향가를 부르며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다면 어찌하여 그들은 자기가 나서자란 정든 고향산천을 떠나 오라는 사람도 없고 반겨줄 사람도 없는 낯설고 물설은 이역땅으로 흘러가야만 하였던가.

식민지 － 바로 그것이였다.

식민지는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나라가 강점되여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완전히 예속되여 지배를 받는 나라 또는 지역을 말한다. 오랜 세월 노예의 사슬과 신분적예속, 자본의 철쇄에 매여 수난을 강요당하던 인민대중은 식민지가 생김으로 하여 온갖 계급적압박과 함께 민족적예속까지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참한 처지에 굴러떨어졌던것이다.

세계륙지면적의 5분의 1이나 되는 아프리카대륙에는 1876년 당시에만 하여도 령토의 6분의 1이 식민지로 되여있었고 1900년에는 10분의 9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

여 강점되여있었다.

말그대로 《식민지대륙》이였던 아프리카에서 지난 시기 노예무역으로 아메리카에 끌려간 노예수는 1451 년부터 1870 년까지에 무려 939 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하여 17 세기에 아프리카에 세계인구의 20%가 살고있었다면 20 세기초에는 겨우 7.7%밖에 안되였다. 이러한 방대한 수의 《건장한 일군》을 빼앗긴 아프리카는 오늘날에도 그 후과를 심각하게 받고있다.

식민지나라인민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 말할 때 아시아인민들의 운명 또한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일찌기 《해가 뜨는 대륙》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대동강문화, 인두스강문화, 량강문화, 황하문화가 창조된 대륙인 아시아에 식민지노예의 운명이 강요되기 시작한 것은 인디아에 첫 식민지척식회사인 《동인디아회사》를 세운 영국식민지자들에 의해서였다. 영국식민지주의자들은 인디아에서 자기를 최고의 통치자, 토지소유자로 자처하면서 자본주의적착취방법에 전통적인 아시아적통치방법까지 결합하여 미증유의 무자비성을 가지고 인디아인민들을 착취하였다.

력사학에서는 19 세기를 가리켜 지구적규모에서의《이민의 세기》로 부른다.

바로 그 중심이 중국과 인디아였다. 오늘날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외에서 살고있는 중국사람의 수는 약 3 천만

명이며 세계 5 대륙의 120 여개 나라에 퍼져있다고 한다.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한 나라와 민족들이 많지만 세계에 조선민족처럼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로 하여 무려 40 여년의 기간 인류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악랄한 통치를 받은 민족은 없었다.

조선은 1905 년 11 월 17 일 일제에 의하여 날조된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을사 5 조약》의 조작을 계기로 일제에게 주권을 송두리채 빼앗기고 그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후 무단통치, 총칼통치를 실시하여 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으며 조선인민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권리를 무참히 빼앗았다.

조선민족은 그야말로 민족으로서 생존하느냐, 멸망하느냐 하는 위기에 처해있었다.

조선에서뿐아니라 세계적범위에서 감행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통치와 략탈에 의하여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이 력사무대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그 나머지 민족들도 멸족의 위기에 처해가고있었다. 허나 식민지나라인민들은 식민지예속을 그대로 감수하고만 있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라고 지적하신바와 같이 식민지나라인민들은 쌓이고 쌓인 분노를 터뜨리며 자기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일떠섰다.

《아시아의 3대항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전락된후 흘러온 수십, 수백년간은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수난의 시대, 암흑의 시대, 기아의 시대였다.

그러나 비극의 시대를 그대로 감수할수 없었던 인민대중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고 식민지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투쟁에 일떠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급사회의 전로정은 력사의 창조자와 력사의 반동, 혁명의 주인과 혁명의 대상, 다시말하여 근로인민대중과 반동적착취계급사이의 첨예한 투쟁의 력사입니다.》

제국주의의 식민주의적침략과 략탈에 결사의 항전으로 대답해나선 세계민족해방투쟁사에 특기할 사변은 아시아의 3대항전이였다.

아시아의 3 대항전이라고 할 때 그것은 1894 년 조선의 갑오농민전쟁, 1851-1864 년 중국의 태평천국농민전쟁, 1857-1859 년 인디아의 시파이폭동을 말한다.

이 3 대항전은 19 세기 아시아반제민족해방투쟁의 새벽종을 울린 항전이라고 말할수 있다. 아시아의 3 대항전이 일어난 19 세기는 식민지민족은 죽지 않았으며 민족자주정신은 그 무엇으로써도 없앨수 없다는것을 처음으로 세계앞에 뚜렷이 과시한 시대였다.

중국에서 태평천국농민전쟁의 시작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인디아에서 시파이폭동이 일어났으며 아시아의 극동에 위치한 봉건조선에서는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났다.

당시 수백년을 두고 극도로 쇠진한 국력에 쇄국을 지켜오던 동방조선은 끝없는 치부와 령토팽창에 환장한 렬강들이 침을 흘리는 침략적야망의 대상으로 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자본주의렬강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굶주린 야수마냥 달려들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갑오풍운의 총아 전봉준이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기치를 들고 갑오의 불길을 과감히 지펴올렸다. 규모나 격렬성에 있어서 19 세기 후반기 조선인민의 반봉건, 반침략투쟁에서 최고봉을 이룬 갑오농민전쟁은 원래 봉건적악정을 반대하는것을 동기로 하여 일어난 농민봉기였다. 그렇지만 청나라의 조선출병과 일제의 무력간섭으로 하여 이 봉기는 반침략적성격을 띤 민족해방전쟁으로 전환되였다. 투쟁의 불길은 삽시에 전국에 확대되여 봉건에 신음하고 외세에 짓밟히려던 조선인민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가슴에 민족자주의 기강을 떨치게 하였다. 22 만 7 000 명이 참가하여 전국을 진감하며 드세차게 벌어지던 갑오농민전쟁은 일청량국의 내정간섭, 지휘자들의 취약성으로 하여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한편 인디아에서 시파이폭동이 일어난것은 1857 년 5 월이였는데 그 동기는 소와 돼지를 숭배하며 그 기름을 먹지 않던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에게 돼지기름과 소기름을 바른 탄약쌈지를 입으로 뜯게 한것이였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인디아민족종교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이였다. 모욕은 분노로, 분노는 거세찬 항거로 바뀌여졌다. 인디아인민의 거세찬 항거는 료원의 불길로 되여 전국각지에서 삽시에 타올랐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인디아식민지통치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다고 판단한 영국통치배들은 영국본토로부터 많은 군대를 끌어들여 폭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폭동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그 영향은 컸다. 폭동결과 영국의 인디아지배, 넓은 판도에서는 유럽과 아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인디아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였던 동인디아회사는 1858 년 8 월 2 일 해산되여 근 2 세기반에 걸치는 략탈의 막을 내렸다.

19 세기 중엽에 일어난 중국에서의 태평천국농민전쟁은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봉건적착취와 외래자본주의상품의 대량적인 류입으로 인하여 인민대중의 생활처지가 악화된 결과 일어났다. 이 농민전쟁을 준비하고 지도한것은 농민출신인 홍수전(1814−1864)과 그가 조직한 상제회였다. 그는 농민대중을 이끌고 무장폭동을 일으키고

《태평천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인차 큰 세력으로 장성한 태평천국농민폭동군은 여러 지역들에서 봉건정부군을 격파하였다. 폭동군은 초기에 2 만명도 되나마나하였으나 남경을 점령한후에는 100 만명의 대병력으로 장성하였다.

14 년간이나 계속되던 태평천국농민전쟁은 결국은 실패하였다.

아시아의 3 대항전을 계기로 아시아에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은 점차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아울러 세계민족해방투쟁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렬강들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인민대중의 참다운 투쟁의 진로를 찾고 인민대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자면 인민대중은 아직도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하였다.

부모없는 고아의 처지

무수한 피의 자욱만을 남기면서 헤쳐온 식민지민족해방투쟁, 승리와 기쁨보다 곡절이 많은 비극사를 돌이켜보며 그 교훈을 랭철하게 총화해보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 시기에 일어났던 노예해방투쟁, 반봉건투쟁,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류사성과 공통성을 찾아보게 되는것이다.

어느 한 력사적시기도 아닌 장구한 력사적기간 그리

고 한두번도 아니고 련속적으로 반복되는 실패속에는 반드시 하나의 공통적인 결함이 내포되여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력사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

이 문제는 인민들의 투쟁과정에 언제나 제기되였지만 력사적으로 그 누구도 바로 해결하지 못하였던 공통적인 문제였다. 실지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인민대중에게서 그 모든 투쟁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관건적고리로 되였다.

배의 라침판과도 같은 역할로 하여 결코 무시할수 없는 이 문제를 두고 인민대중은 오래동안 숙고하였지만 그것을 식민지민족해방투쟁단계에 와서도 해결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다나니 착취사회에서 피압박인민대중이 노예사회와 봉건사회의 전복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변혁을 수행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들이 다 지배계급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사회와 력사가 그들의 의사가 아니라 주로 착취계급의 의사에 따라 흘러오게 되였던것이다.

이 모든것은 전적으로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데 근원이 있다.

지도가 없으면 착취계급이 《지도자》로 득세하고 그들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운명이 롱락당하기마련이다.

과거력사를 돌이켜보면 노예주, 봉건통치배들은 두말할것도 없이 운명의 구세주가 아니라 착취자, 지배자였다. 부르죠아지도 여기에서 례외로 될수 없다.

실지에 있어서 착취계급들은 인민대중과 함께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기 위한 투쟁에 동참하기도 하였지만 일단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옛 친구》였던 인민대중을 배반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요구가 아니라 저들의 리익만을 실현하는 사회, 저들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놓았다.

노예소유자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등 이 모든 사회들은 극소수 착취자들에게는 천당이였지만 인민대중에게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인민대중은 기나긴 세월 마치나 사회의 버림을 받아 남의 집 울타리밖에서 집없이 찬바람을 맞으며 떠는 가련한 고아처럼 모욕과 치욕, 차거운 사회적버림속에 비참한 생활을 하여왔다.

고아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기 마련이다.

지난 시기에는 인민대중을 보호하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줄 어머니, 인민대중의 보호자, 운명의 구원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피와 희생으로 얼룩진 순탄치 않는 력사의 언덕을 넘어온 인민대중의 곡절많은 비극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그들에게 력사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새 생활을 개척하여줄 위인은 과연 언제 력사무대에 나타나겠는가.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또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사형판결을 받은 조선의 반일애국렬사 안중근(1879. 9. 21－1910. 3. 26)은 이렇게 절규한바 있다.

《나를 이끌어줄 그런 위인, 그런 영웅은 없었다. 5 천년 력사를 가졌으나 짓밟히고 천대받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고 세계에 당당히 내세워줄 그런 절세의 위인을 한번 만나봤으면 …

아, 그런 영웅은 언제나 나타나겠는가？》

인민은 수령을 모셔야 한다

이 세상에 생을 두고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머니에게서 생을 이어받는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낳아 따뜻한 품에 안아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생의 은인이다.

생을 주었을뿐아니라 추울세라 더울세라 보살펴주며 힘겨워도 기쁠 때도 안아키워주는 품이 어머니품이다.

바로 그러하기에 어머니가 있으면 자식은 무한히 행

복하기 마련이다. 하기에 어머니의 품을 떠난 인생, 고아의 인생은 제일 불행하다고 하지 않는가.

이것은 인민대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하신 명언이 있다.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인민은 부모잃은 고아의 처지와 다름이 없다.》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진 명언이다.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수령은 어머니와 같다.

수령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참다운 존엄과 행복을 찾도록 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꽃피워주며 자주적인간의 본성에 맞는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게 하여 준다.

그것은 수령이 인민대중의 눈을 틔워주고 하나로 뭉치게 하여주기때문이다.

지난 시기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면서도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지 못한것은 결국은 그들이 의식수준이 낮았고 조직화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하여 인민대중은 착취와 압박을 고스란히 감수하면서 그것을 숙명으로만 알았고 투쟁에 나섰어도 좌절과 희생의 고배만을 마셔야 하였던것이다.

인민대중이 의식화, 조직화되여 력사의 주체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려면 자신들을 각성시키고 하나로 묶어세워주는 령도자, 수령을 모셔야 한다.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력량으로 결속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사상을 창시하고 조직을 마련하는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면 수령은 어떤 분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의사를 체현한 최고뇌수입니다.》

개별적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것처럼 인민대중의 최고뇌수는 수령이다.

최고뇌수로서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켜 인민대중이 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한다.

수령은 단결과 령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이것은 뇌수가 인간활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이나 다름없다.

수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의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를 돌이켜보아도 잘 알수 있다.

19 세기 중엽에 활동한 로동계급의 첫 수령들이였던 맑스와 엥겔스는 맑스주의를 내놓고 력사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로동계급에게 력사적사명과 해방의 앞길을 뚜렷히 밝혀주고 그들을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하였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로 넘어간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레닌은 맑스주의를 발전시켜 레닌주의를 내놓고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제국주의의 아성을 짓부시고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였으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20 세기의 위대한 수령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0 세기 시대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를 누구보다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심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인류력사발전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계승발전시키시여 그 생명력을 빛나게 이어주시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으로 하여 좌절과 진통을 겪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일심단결된 강력한 통일체로 떠밀고 나가게 하여 그 명맥을 굳건히 이어주시였다.

오늘 조선에서 그 빛나는 위력을 과시하고있는 일심

단결은 조선의 모든 승리의 열쇠로, 만능의 무기로 되여 걸음마다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고 있으며 조선을 불패의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솟아오르게 하고있다.

두분의 절세의 위인들께서 이룩하신 업적은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특출한것으로 하여 지금 세계진보적인민들속에서 아낌없는 찬탄과 부러움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오늘 조선인민은 또 한분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력사의 온갖 풍파가 휘몰아치고 난관이 겹쌓이지만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조선의 전진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가로막지 못하고있다.

령도자와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있는 한 조선인민은 력사의 힘있는 주체로 자기의 위력을 세계만방에 힘있게 과시할것이며 자신들이 선택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어제날 눈물의 아리랑이 처량하게 울리던 조선에 오늘은 강성부흥의 아리랑이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다.

일심으로 뭉쳤으니 두렴없어 아리랑
철벽으로 다졌으니 끄떡없어 아리랑
… …

태양조선 강해가니 존엄높아 아리랑
태양민족 흥해가니 살기좋아 아리랑

3) 인류력사의 새 시대 자주시대-20세기

앞에서 우리는 력사의 주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력사의 주체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발전한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력사의 주체와는 달리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통일단결된 인류력사상 가장 위력한 사회적집단이다.

여기에서는 그렇듯 위대한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를 탄생시킨 20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20세기는 어떠한 세기였을가.

사람마다 20세기에 대한 리해는 각이할것이지만 우리는 20세기야말로 력사상 가장 자주로운 세기라고 단언하게 된다. 20 세기에 들어오면서 인류는 주체시대, 자주시대라는 력사의 새 시대를 안아올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 시대는 지난날 큰 나라의 지배와 예속밑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 세기에 인민대중은 력사상 처음으로 력사의 주인으로 당당히 등장하였으며 순종과 굴종이라는 치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으로 력사를 새롭게 주름잡아 나갔다.

인류가 낳은 이 위대한 시대는 력사상 전무후무한 시대로서 가장 고귀한 결정체, 산아들을 산생시켰는데 그것은 력사의 자주적주체와 사회주의의 출현이였다.

자주시대의 태동

20세기에 들어와 세계무대에서는 전례없는 새로운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장장 수세기동안 무자비한 착취와 략탈속에 신음하고있었던 평범한 인민대중이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투쟁에 다 같이 일떠선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세계적범위로 확대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선행시대에는 볼수 없었던 력사적사변으로 거대한 폭과 깊이를 가지는 변화,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지각변동이였다.

분명히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해주는것이였다.

20세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볼 때 지난 세기는 한마디로 말하여 지배계급이 제마음대로 력사무대를 활보하면서 《세계의 주인》이라는 너울을 쓰고 전횡과 략탈, 착취

와 억압을 일삼던 세기였다.

마께도니아왕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과 고대로마통치자들에 의한 유럽과 소아시아의 정복, 중세시기의 십자군원정, 콜롬부스에 의한 아메리카대륙의 발견과 그에 따른 자본주의렬강들의 탐욕스러운 식민지쟁탈전 등을 비롯한 수많은 크고작은 정복전쟁들에 의하여 세계 수억만 인류가 착취와 억압의 멍에를 쓰고 신음하고있었다.

그중에서도 17~18 세기 콜롬부스의 새 대륙발견으로 시작된 식민지개척과 앞을 다투어 뛰여든 자본주의렬강들의 식민지쟁탈전은 그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지배자, 략탈자들의 횡포성과 야만성의 극치였다.

이러한 참혹한 비극적수난의 세기는 19 세기에 와서도 계속되였다.

그러나 20 세기에 들어서면서 영원한 동토대와 같던 지배와 략탈의 세계는 뒤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엄혹한 동토대의 지각을 꿰뚫는 뜨거운 화염이 세차게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 화염의 세찬 분출은 사회주의 10 월혁명,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한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에서의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의 급격한 앙양이였다.

로씨야에서뿐아니라 중국, 인디아, 인도네시아, 웰남, 먄마와 필리핀 그리고 조선 등 아시아나라들에서도 반제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세계는 순식간에

변혁의 불도가니속에 빠져들어갔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일떠서고 그들의 투쟁이 세계적범위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은 장엄한 이 현실, 이것은 지난 시기에는 없었던 새로운 변화였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인민들의 투쟁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일부 계급과 계층만이 일떠서는 정도였고 그 범위도 일부 나라 또는 지방이거나 극상해야 개별적지역들에 국한되여있은데 불과하였다.

로동계급이 처음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한 19 세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당시에는 발전된 유럽의 몇개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로동계급만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하여 임금로동과 고용제도와 같은 자본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었다.

그러나 20 세기에 들어와서는 형편이 완전히 달라졌다.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뿐아니라 식민지, 반식민지나라의 수백만 인민들도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압박을 그대로 감수하지 않고 투쟁에 일떠서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한 나라, 한 지역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세계적범위에로 번져져 갔다. 특징상 광범성과 다양성을 띠고 격렬하게 벌어진 인민대중의 혁명적투쟁과 진출은 20 세기를 세차게 진동시키였다.

이에 질겁한 제국주의자들과 세계반동들은 인민대중

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아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대중적인 그들의 투쟁은 옳은 지도를 받지 못하여 수많은 희생을 내면서 실패와 좌절의 고배를 련이어 들이키고있었다.

쓰라린 실패와 가슴아픈 좌절로 세찬 진통을 겪고있었던 20 세기초엽 인민대중의 대중적진출의 실태는 자기의 새로운 생명을 안아줄 위대한 수령을 절절히 요구하고 있었다.

바야흐로 20 세기는 그러한 위대한 수령을 탄생시켰다.

자주시대에 솟아오른 위대한 태양

20 세기가 력사상 새로운 세기로, 자주시대로 전변되여온 행정에는 그 개척과 전진을 위해 헌신한 위인들의 헌신과 로고가 깃들어있다.

돌이켜보면 백수십년의 공산주의운동력사는 로동계급의 수령들이 세계를 변혁시켜온 력사로 새겨져 있다.

19 세기중엽에 맑스와 엥겔스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았고 레닌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시초를 마련하였다.

20 세기에는 조선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자주시대가 빛나게 개척되였다.

자주시대의 개척, 그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사에서 이룩하신 거대한 공적이다.

그이는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시대를 개척하시여 20세기를 자주로 풍만하게 하신 위대한 태양이시였다.

태양은 그 광휘로운 빛발로 하여 위대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자주시대를 개척하신 위대한 태양으로서 그 광휘로운 빛발을 온 누리에 찬란히 뿌리시였다.

자주시대의 위대한 태양으로서의 그이의 위인상은 주체사상 창시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던 당시 10대의 소년시절에 벌써 1920년대 후반기에 새롭게 나타나고있던 국제정세의 흐름들을 주의깊이 고찰하시였다.

승리한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영향하에 세차게 전개되고있었던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식민지, 반식민지나라 인민대중의 해방운동의 급속한 발전, 특히 암흑의 대륙, 잠자는 대륙으로 불리워오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해방운동의 급속한 앙양은 그이의 특별한 주목을 끌어당기였다.

전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는 혁명운동의 광범성과 다양성, 이것은 분명히 선행시대에는 볼수 없었던 일로 새로운 흐름이였으나 당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돌리는 사람은 없었다.

오직 비범한 예지를 지니신 **김일성**동지께서만이 그것을 심상하게 보지 않으시였다.

우리는 로작 《조선혁명의 진로》를 통하여 그이께서 당시의 세계적사변들을 분석하시고 주체사상의 기본알맹이, 출발점을 걷어쥐시였다는데 대하여 찾아보게 된다.

그이께서는 이 로작에서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조직동원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로작의 이 부분은 그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작에 있는바와 같이 주체사상의 두가지 출발점으로 정식화되였다.

주체사상의 출발점은 20세기력사에 자주의 궤도로 이어지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훌륭히 배출하였고 그 심화발전으로서의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풍만한 열매를 주렁지게 하였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

20 세기력사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요구하는대로 흘러갔으며 그이께서 일으키신 자주의 열풍은 20 세기 전력사를 휩쓸고 력사를 자주의 새 력사로 일변시켜나갔다.

물론 자주시대를 개척하는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였다. 세계반동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공세를 짓부시며 자주시대를 개척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자주시대의 개척에서 그 담당자들인 인민대중을 자주시대의 위력한 력량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노력하신것은 특기할만한것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기본담보를 세계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는데서 찾으신 그이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비롯한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세계적범위에서 꾸려진 반제자주력량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하여 20 세기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하여 5 대양 6 대주에는 자주의 거세찬 폭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되였다.

자주의 거세찬 폭풍은 력사적으로 내려온 온갖 낡은 것들을 휩쓸어버리고 20 세기를 자주로 끓어번지는 창조와 변혁의 세기로 변모시켜나갔다.

식민지, 식민지나라들에서 민족주체적력량에 의한 민

족해방혁명의 승리, 후진국들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승리,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전면적붕괴와 쁠럭불가담운동의 발전, 반제자주력량의 확대강화. 여기에는 주체의 기치높이 인류자주위업을 위하여 헌신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활동업적이 빛나게 새겨져있다.

참으로 20 세기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활동에 의해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 력사의 자주적궤도가 개척되고 자주의 궤도따라 힘찬 전진을 이룩하여 세계의 면모와 시대의 내용에서 근본적전환이 이룩된 세기였다.

20 세기가 새로운 세기, 자주의 세기로서 빛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그이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이의 탁월한 활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오늘 전세계진보적인류는 그이를 《20 세기 자주시대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며 끝없이 흠모하고있는것이다.

국제**김일성**상이 제정된것은 그이에 대한 세계진보적인류의 강렬한 흠모심의 발현이였다.

주체사상신봉자들과 세계자주화위업에 기여한 세계진보적인사들에게 주는 최고의 국제상인 국제**김일성**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81 돐을 맞으며 주체82(1993)년 4 월 13 일에 제정되였다. 국제**김일성**상이 제정된것은 현 시대의 가장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위인중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는데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조선인민은 주체년호를 제정하여 그이의 탄생일을 주체시대, 자주시대의 원년으로 력사의 년륜에 기록하였으며 그이를 금수산태양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였다.

그이께서 비쳐주신 자주의 향로를 따라 흘러온 20 세기는 자주시대를 개척한 시대로 인류력사의 한페지에 뚜렷이 기록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20 세기, 자주의 세기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되였다.

《평양선언》

20 세기가 저물어가던 1990 년대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이 일대 시련을 겪던 준엄한 시기였다.

그것은 자주위업의 높은 단계인 사회주의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에 의하여 진통을 겪고있었기때문이였다.

새것의 탄생과 승리는 진통을 겪는 법이다.

사회주의가 출현하자마자 제국주의자들과 세계반동들은 사회주의영향력을 거세하고 그를 말살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제재와 봉쇄를 가하였는가 하면 끈질긴 심리와해책동을 벌리였으며 핵무기를

휘루르며 침략과 전쟁책동을 일삼기도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승승장구하던 사회주의에 커다란 위구를 느꼈기때문이였다.

지난 세기 사회주의는 커다란 파급력을 가지고 전파되였으며 세계적범위에서 실현되여 사회주의체계로까지 전환되였다.

한때 지구상에는 세계인구 27 억 가운데서 약 10 억의 인민들이 이미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섰으며 세계령토의 4 분의 1 을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에 사회주의의 기발이 휘날리였었다.

이렇듯 세계에서 대행진가를 부르며 전진하던 사회주의 진영내에서는 20 세기 마지막년대를 넘어오면서 하나의 커다란 비극적사태가 발생하였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좌절과 붕괴였다.

사회주의라는 20 세기의 력사의 기관차가 동음을 멈추고 탈선되였다.

물론 이것은 그 진상을 해부해보면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사회주의배신자들에 의하여 초래된 후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진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적지 않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속에서는 조성된 사태를 두고 20 세기의 《지각변동》, 제 2 차세계대전후 가장 심각한 《대동란》으로 묘사하면서 마치나 자본주의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이 그릇된것처럼 인식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이 사태를 두고 론의가 분분하고 혼란에 빠져있던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자본주의변호론자들은 《사회주의종말》이니 뭐니 하면서 요란스럽게 떠들어대였다.

사회주의가 좌절되느냐 마느냐하는 준엄한 력사적시기에 력사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 인민대중의 운명을 두고 그 구원의 길에 나서신 분은 조선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전세계진보적인류는 그이께 사회주의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다.

이에 대하여 로씨야 빨레야 출판사 사장 니꼴라이 미쉰은 다음과 같이 썼다.

《실로 20 세기로부터 21 세기의 접경에 이르러 력사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아들이신 **김정일**동지께 전세계에서의 사회주의의 운명에 대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맡겼다.》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줄기차게 이끌어나가실 력사적대업을 떠맡으신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조종간을 틀어쥐시고 헤쳐나가실 지략을 펼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좌절된 사회주의를 재건하기 위한 활동을 현 실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시였다.

병든 사회주의를 고치려면 사회주의의 현 상태를 정

확히 진단하여야 한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와 관련한 력사적인 고전적로작들을 련이어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의 좌절과 붕괴를 두고 떠들어대는 반동들의 악선전을 눌러버리시였으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진보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에로의 새로운 방향과 과학적인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를 비롯한 그이의 로작들은 작렬하는 포탄마냥 련이어 발표되여 세계진보적인류의 가슴을 사회주의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였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을 전률케 하였다.

여기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근본원인에 대한 그이의 지적은 참으로 경탄할만한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로작들에서 《결함은 주체에서 찾고 사업은 객관에서 찾아야 한다.》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명언을 들어가시며 사회주의가 붕괴된 근본원인은 주체를 강화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지 못한데 있다고 명쾌하게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의 본질을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리해하지

못한데로부터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지 못한데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적하신 참으로 명철한 명구이다.

사회주의가 붕괴된 나라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지 못한것은 마치나 집을 지어놓고는 그 집에 주인을 들여앉히지 않은것과 같은 리치이다.

주인이 없는 집에는 도적이 들기마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주체문제뿐아니라 그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과 그 발전완성과정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밝혀주시였다.

로작들이 발표되자마자 세계는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열기로 들끓었으며 진보적인민들은 사회주의를 재건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이러한 실태를 두고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과학성, 그 승리의 필연성을 굳게 확신하시였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당하였지만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의연히 인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사회주의는 기회주의에 의하여 일시 가슴아픈 곡절을 겪고있지만 그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가다듬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여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본질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철의 론리로 증명하시였다.

사회주의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그 승리의 새로운 진로를 밝히기 위한 그이의 정력적인 활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커다란 지향과 념원이 그대로 반영된 력사적인 평양선언이 채택된것은 그이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쌓아올리신 특기할 력사적업적으로 된다.

평양선언은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라는 제목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진보적인사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주체 81(1992)년 4월 20일 평양에서 발표되였다.

평양선언은 사회주의는 인류의 리상이며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사회, 진정한 인민의 사회라는것을 확인한 력사적인 선언이였다.

평양선언이 발표되자 세계 진보적정당들은 이 선언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들과 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한 투쟁의 기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의 기치》, 《제2공산당선언》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앞을 다투어 선언에 서명하였다. 주체 88(1999)년 11월 초 당시 평양선

언에 서명한 정당들의 수는 무려 250개에 이르렀다.

20세기 자주위업의 위대한 향도자이신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조선에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조선을 일떠세우신데 대하여 특별히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이께서는 조선에 인류가 리상으로 그려보던 사회주의의 본보기를 마련하시고 선군정치로 사회주의를 지키시여 자주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주시였다.

자주의 새 시대 력사의 새 시대의 위대한 산아는 사회주의조선이다.

4) 자주적인 주체의 참모습-조선의 위대한 일심단결

지금까지 자주의 세기, 20세기의 위대한 산아인 사회주의에 대하여 보았다. 아울러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도 20세기 자주시대의 위대한 산물로 력사에 뚜렷이 기록되였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인민대중이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과정에 형성된 력사상 가장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집단이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조직사상적통일체를 이룬 사회적집단이다.

력사상 가장 위력한 사회적집단으로서 자기의 고유한

생명력과 독특한 생활력을 가지고 력사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 집단은 그 위력과 생명력에 있어서 이 세상 그 어느 집단에 비할바가 못된다.

강한 조직력과 높은 사상정신적면모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이 집단의 원고향은 바로 사회주의 조선이다.

사회주의조선을 돌아보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세계에 자랑높은 사회주의로서 유명하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이때까지 인류력사가 대상해보지 못하였던 전혀 새로운 세계, 온 사회가 수령을 어버이로 모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참으로 위대한 사회주의이다. 일찌기 조선의 사회주의가 세상사람들속에서 사회주의의 《본보기》로 불리워온것으로 하여 자랑할만한 특징들이 적지 않을것은 자명한 일이겠지만 그중에서도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는 조선식사회주의의 제일가는 자랑으로 되고있다.

조선사회주의의 참모습을 알자면 그 위력과 공고성의 초석으로 되고있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 사회정치적 생명체라고도 부르는 이 통일체에 대하여 알아야 할것이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조선에 대하여 다 알았다고 말할수 없다. 그것을 두고 《특허무기》라고 해야 하겠는지 아

니면 《보물함》라고 해야 하겠는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여하튼 조선식사회주의의 모든 비결은 여기에 함축되여있다.

조선의 군중시위를 보며

조선방문에서 사람들의 특별한 주의를 끄는것은 군중시위이다.

조선에서 군중시위는 경사스러운 명절들인 태양절과 공화국창건기념일, 당창건기념일, 건군절 등 의의깊은 정치적명절들을 계기로 대성황리에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시위는 자본주의사회이건 다른 류형의 사회이건 어느 나라에서나 있게 되는것이지만 조선의 군중시위는 다른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시위와는 그 규모와 형태, 양상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것이다.

솟구쳐 흐르는 눈물속에 모두가 어린애마냥 발을 동동 구르며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부르면서 광장주석단앞을 지나가는 군중들.

주석단에 서시여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드시고 그에 열정적으로 화답하시는 령도자.

그 무엇이라고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령도자와 인민이 서로 부르며 화답하는 이 아름답고 뜨거운 화폭.

령도자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을 목놓아 터뜨리는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가 온 광장에 메아리쳐 하나의 흠모

와 격정의 바다를 이룬 이 광경.

그것은 실로 수령과 인민들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숭고한 화폭이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의 이 화폭을 두고 세상사람들은 한결같이 부러워하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토로하군 한다. 조선에서는 수령과 인민이 어쩌면 그렇게도 열렬하고 뜨겁게 서로 결합되여 있을가, 그 참비결이 과연 무엇일가 라고.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

그 비결에 대하여 알자면 조선의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조선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가 있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란 수령, 당, 대중이 사상의지적 및 조직적으로 그리고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쳐있는 집단을 말한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란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도 표현되며 그것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사회정치적생명체로도 표현된다.

조선인민들속에 평범한 말로 되여버린 이 말의 의미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리해하자면 좀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 이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1993 년 5 월 조선을 방문한 외국의 한인사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접견받은적이 있었다.

화제는 새 사회건설과 관련한 문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속담에 독불장군이란 말이 있는데 새 사회를 건설하자면 당부터 강화하고 핵심을 키워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키우는 방법으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 사회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였다.

담화도중 그이께서는 탁상우에 놓여있는 복숭아를 가리키시며 수령, 당, 대중을 이 복숭아에 비유하면 살은 인민대중이고 씨는 당이며 씨속에 있는 씨알은 수령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세상리치는 대비속에서 그 속성이 더욱 뚜렷해지는 법이다. 그야말로 신통한 비유였다.

통일체의 원리를 복숭아에 비유하여 가르쳐주고나신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되여 있기때문에 미국놈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끄떡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단결해야 나라가 망하지 않지 나라가 망하면 모두 거렁뱅이신세가 된다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였다.

단결은 반드시 핵이 있는 단결로, 당은 철저히 복숭아

처럼, 새기면 새길수록 심원한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였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일심단결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

그것은 하나의 중심과 중추에 의하여 통일되고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원리에 의하여 결합된 전일적인 집단이다.

그 중심은 수령이다.

세상만물이 핵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운동발전하는것처럼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서도 핵과 같은 중심이 있어야 한다. 바로 령도자. 바로 령도자, 수령이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되고있다.

수령은 이 집단의 중심, 최고뇌수의 위치에서 사회적집단의 통일단결을 보장하면서 그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고있다.

한편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이 통일체에서 중추의 위치에 있다.

수령과 당이 중심, 중추로 되여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혈연적으로 련결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는 강한 생명력,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

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게 됩니다.》

조선의 사회정치적생명체, 그것은 그 어떤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자주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자기의 창조적힘으로 실현해나가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지고있다.

오늘 조선에서 이룩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는 일심단결의 완벽성과 공고성,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의 완벽성으로 하여 사회정치적집단의 최고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오늘에 와서 인류는 력사가 이때까지 대상하지 못하였던 전혀 새로운 세계, 온 사회가 수령을 어버이로 모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위대한 현실을 목격하게 되였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 하나의 공허한 리론이 아니라 조선의 산 현실, 산 화폭으로 되여 새로운 세계를 우리들에게 펼쳐주고있다.

조선은 하나의 대가정

보통 사람들은 가정이라고 하게 되면 가까운 혈육들이 모여 사는 사회의 세포로 여긴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들을 귀중히 여기고 무한히 아끼고 사랑한다.

부모의 열렬하고도 진실하며 영원한 사랑에 의하여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담보된다.

조선인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우리는 조선의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이라는것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그들이 하고있는 말을 들어보면 알수 있다.

그들은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어머니당》, 《우리 당》, 《우리 인민》, 《하나의 대가정》이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리군 한다.

다시말하여 수령도 우리 수령님이고 당도 우리 당이며 인민도 우리 인민이라는것이다.

사회에 대하여 말할 때도 하나의 대가정이라고 하면서 노래에까지 담아 즐겨 부르고있다.

원래 《우리》, 《가정》, 《어머니》라는 이 말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장 가까운 혈통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통용되는 호칭이다. 그렇지만 조선인민들이 언제나 친근하게 부르고있는 《우리》, 《가정》, 《어머니》라는 말은 한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 령도자와 인민들사이에 통용되는 친근한 의미로 쓰이고있다.

수령과 인민들사이의 관계가 마치나 한가정에서의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처럼 혈연적으로 화목하게 이루어져있는 조선의 이러한 현실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특이한 광경이다.

개인주의를 기초로 하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란무하는 자본주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이 희한한 광경은 조선의 어디에서나 찾아볼수 있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어버이로 부르면서 그분들의 초상화를 가정에 정중히 모시고 좋은 일이 있거나 경사로운 날이면 그 존귀하신 영상들을 우러러 제일 먼저 인사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같이 나누고 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자신들의 목숨보다 먼저 그분들의 초상화를 생각하며 그것을 제일 먼저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부모없는 아이들과 자식없는 늙은이들, 불구자들을 데려다 한식솔처럼 지내는 가정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으며 일하던 도중 남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내대면서 동지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소행들 또한 부지기수이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분쟁, 종교분쟁, 령토분쟁으로 하여 혼란과 붕괴에 직면하고 있을 때 오직 조선에서만은 그 어떤 사회적동란이나 혼란같은것은 찾아볼수 없다.

오늘 조선에서 펼쳐지고있는 이러한 빛나는 현실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생명체가 안아온 소중한 열매이다.

그 위대한 통일체가 있어 동방의 자그마한 나라 조선에서 전무후무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인 선군정치가 출현하여 그 위력을 세계만방에 떨치고있으며 어제날 《약소국》

으로 불리웠던 조선을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령마루로 솟구치게 하고있으며 또 최근에는 우주정복으로 세계정치를 일변케 하고있다.

조선인민이 이처럼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고 모두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있음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정치, 경제적위기로 하여 진통과 곡절을 겪고있지만 조선에서만은 모든 일이 잘되여가고있다.

조선인민들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어째서 그토록 즐겨쓰고있는가 하는것이 어느 정도 리해가 갈것이다.

일심단결의 위력

일심단결속에 조선의 모든 위력이 있다. 그것은 조선을 강성국가로 떠받드는 든든한 주추돌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위력한 무기입니다.

… …우리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과 경제적난국을 이겨내고 사회주의의 붉은기를 지켜냈습니다.》

국가의 강대성은 그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달려있지 않다.

언제인가 유고. 워또르는 《사람의 위대성이 그의 키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것처럼 인민의 위대성은 인구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바 있다.

그의 이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국이 되려면 우선 정치가 강해야 한다. 다시말하여 정치대국이 되여야 한다.

그것은 정치가 경제, 군사, 문화를 포괄하는 사회의 전반적령역에서 그 모든것을 좌우하는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분야인것과 관련된다. 이런데로부터 비록 경제나 군사분야에서 대국이 되자고 해도 정치에서부터 대국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정치가 강하지 못하면 경제나 군사가 용을 쓰지 못한다.

조선은 이미전에 정치사상강국으로 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고 오늘은 경제강국의 령마루로 내달리고있다. 이것은 세계가 공인하고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조선이 정치강국으로 된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을가.

조선의 주체사상이 가르켜준대로 한다면 정치강국이 되자면 수령, 당, 대중이 통일되여있어야 한다는것이다.

즉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자 정치강국이라는것이다.

이것을 풀이해보면 수령, 당, 대중이 사상, 의지, 마음이 하나로 통일된 전일체로 되여야 정치강국이 된다는것이다.

정치강국으로서의 조선의 면모, 위용은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데서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 그것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번에 수령님의 탄생 8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세계여러 나라의 벗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보고 이 힘은 원자탄보다 더 위력하다고 하면서 몹시 부러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조선의 일심단결이 원자탄보다 더 위력하다는 지적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20세기 40년대중엽 원자탄이 개발된후 세계는 그 위력에 놀라와하였다. 그것은 세상에 출현한후 두터운 철의 장벽뒤에 숨어 세계를 무섭게 위협하였다.

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그 무기를 손에 넣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미처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나라들은 그것을 소유한 나라들의 위협과 공갈에 기가 눌리워 하나둘 굽어들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큰 나라들도 례외는 아니였다.

그러나 조선에 일심단결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나타나자 형세는 일변하였다.

순 물리적힘만을 가지고있던 핵무기의 위력은 조선의

정치사상적위력앞에 점차 굽어들기 시작하였고 그 우월성과 전능성은 희박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첫선을 보이기 시작한것은 조국해방전쟁시기였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거만한 제국주의강적 미제를 타승한 조선인민은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다른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붕괴되고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이 극도에 이르고있던 엄혹한 속에서도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조선식사회주의를 고수하고 공고발전시켜 강성국가로 솟구쳐올랐다.

조선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한 조선의 일심단결은 그 막강한 견인력으로 온 세계를 끌어당기고있다.

일찌기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위력한 힘은 핵무기에 있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이제는 옛말로 되여버렸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인 조선의 일심단결이 있기때문이다.

단순한 물질들의 화합으로부터 나오는 핵무기의 물리적위력은 그것을 만들어내고 다스리는 창조자인 인간들이 하나로 굳게 뭉친 힘보다 더 우월할수도 위력할수도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리치가 아닐가 .

《주체사상은 바로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혔습니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관은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김정일

3. 인간사회는 인민대중이 개척하는 길을 따라 전진한다

여기에서는 주체사상이 력사의 주체로 내세운 인민대중이 력사를 개척하면서 어느 길로 어떻게 나가는가 하는데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저 한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라는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이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이것은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을 밝힌것으로 되며 아울러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해명한것으로 된다.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의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길을 따라 목적의식적으로 전진해나가는 사회력사, 이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접한 새로운 원리이다. 주체사상의 독창성은 여기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1)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따라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저작들을 읽는 과정에 《사회적운동은 자기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따라 변화발전합니다.》라는 명제에 자주 접하게 된다.

비록 몇글자밖에 안되는 명제이지만 여기에는 인류사

회, 인류력사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이 제시되여있다.

무릇 이 세상만물은 다 자기의 법칙을 가지고있으며 그에 따라 변화발전해간다.

법칙에 따른 변화발전,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현상이 가지고있는 보편적인 특성이다.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사회에도 법칙이 있으며 인간활동에도 법칙이 있다.

자연계에는 만유인력법칙과 화학원소주기법칙과 같은 무생물세계의 법칙, 멘델의 유전법칙과 같은 생물세계의 법칙이 있다.

사회도 세계의 한 부분인것만큼 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변화발전법칙이 있다.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 자연에만 법칙이 있다고 일면적으로 생각하면서 사회에서의 그 어떤 법칙의 작용도 부정하였었다.

있다면 다만 그 어떤 개인의 변덕이나 자의적인 판단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학자는 고대에짚트의 녀왕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더 낮았더라면 유럽의 력사가 달리 되였을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왕후의 소화불량증이라던가 변덕이 전쟁과 같은 사변을 일으킬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력사적운동과정은 결코 특정한 개인의 변덕이나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 이렇게도 될수 있고 저렇

게도 될수 있는 우연적인 사건의 루적이 아니다.

력사가 아무런 법칙성도 없이 순전히 우연적으로 이렇게도 될수 있고 저렇게도 될수 있다면 어떻게 되여 동서방을 물론하고 많은 나라들이 류사한 사회발전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겠는가. 이것이 순전히 우연적인 일치이겠는가. 그렇게 볼수는 없다.

물론 사회에는 사건들과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 여기에 수많은 인간들이 관여하는것으로 하여 사회의 변화는 비할바없이 복잡한것만은 사실이지만 사회에는 움직일수 없는 력사적필연성, 법칙이 있으며 바로 사회는 이러한 필연성, 일정한 법칙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면 사회를 《통제》하는 법칙, 그것은 어떤것일가.

주체사상은 그것은 주체의 운동법칙이라고 주장한다.

사회력사에 주체가 있다는데 대하여서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하였다.

사회력사에 주체가 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의 모든 사물현상들은 주체와의 호상련관속에서 작용하게 된다.

사회의 모든 사물현상들의 주체와의 호상작용, 이것은 사회적운동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고유한 현상이다.

반면에 자연에는 이러한 주체가 없는것으로 하여 이러한 특성이 없다.

자연에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이 있을뿐이며 자연은 그것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변화발전한다.

자연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은 호상작용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운동법칙들 다시말하여 력학적운동법칙, 물리적운동법칙, 화학적운동법칙, 생물학적운동법칙들을 낳았다. 이러한 운동법칙들에 의하여 자연은 자연발생적으로 변화발전하게 된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의 운동과 달리 사회력사적운동에는 이 운동을 주동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있으며 그에 의하여 합법칙적으로 변화발전하게 된다.

그 과정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에서는 세계를 지배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벌어지고있다.

그것은 크게 3 가지 령역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자연개조령역, 사회개조령역, 인간개조령역이 그것이다.

사람은 우선 객관적물질세계에 대한 지배와 개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개조활동을 벌리며 그 과정에 물질적부를 창조하여 물질적생활조건을 마련한다. 사람들이 살아가자면 자연을 리용하여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 자연을 잘 리용한다는것은 곧 자연을 개조한다는것을 말한다. 자연을 개조하여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사회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그것은 사람들사이의 사회적협력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사회적협력관계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력사가 전진함에 따라

부단히 완성되여야 한다. 사람들은 사회개조활동을 통하여 사회적협력관계를 개선하며 완성해나간다.

자연을 개조하는것도 인민대중,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활동을 벌리면서 자기자신을 끊임없이 개조하며 발전시켜나간다. 인민대중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는 결국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사업을 통하여 실현되며 인민대중은 그 주체로 된다.

인민대중은 사회적운동의 주체로서 사회의 모든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하고 사회관계를 발전시켜나가며 이 과정에 력사의 주체로서 자기의 주동적작용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

사회력사속에서 발휘하는 인민대중의 이러한 주동적작용과 역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사회에는 자연에는 없는 독특한 합법칙적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가리켜 주체사상은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이라고 한다.

주체사상에서는 이 법칙이 사회에만 작용하고 자연에는 없다고 보면서 자연의 운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회적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한다고 한다. 이러한데로부터 주체사상에서는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한 사회적운동법칙을 그저 사회적운동의 합법칙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고유한》

이라는 문구를 붙여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이라고 명명하고있다.

바로 사회력사는 인민대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변화발전해나간다.

그러면 사회적운동에만 작용하는 고유한 합법칙성에 의하여 사회력사는 어느 길로 어떻게 가고있는가. 주체사상은 사회력사가 자주의 길을 따라 창조적성격을 띠고 목적의식적으로 변화발전해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보기로 하자.

2) 력사가 가는 길은 자주의 길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우선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이라고 말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류사회의 발전력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입니다.》

사회력사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다. 그것으로 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은 자주적운동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이라는 이 원리는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력사적운동을 고찰한 주체의 사회력사관의 중요원리이다.

둘러보면 이 세상에 생을 두고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의 생존방식, 생존법칙에 따르는 길을 가지고있으며 그 길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천수만갈래의 길은 그 모양과 형태, 종류에 있어서 천태만상이다.

실례로 계절이 바뀌면 기러기나 제비와 같은 철새들은 보금자리를 찾아 머나먼 길을 떠나며 물고기들도 해류를 따라 머나먼 바다길을 가기도 한다.

그뿐아니라 거시세계인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도는 천체자리길도 있고 미시세계의 작은 미립자들이 도는 전자자리길도 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물들은 각자 정해진 길들을 따라가면서 그 길우에서 발생, 성장, 소멸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되여 가고있다.

수십억년간 무변광대한 자연의 길을 따라 가는 과정에 수많은 유형무형의 물질들이 출현하기도 하였고 영원히 사라지기도 하였다.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길이 아무리 다양하다 하여도 그 길은 자연에 순응하는 길외에는 다른것이 없다.

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사회에도 길이 있다.

수많은 인간들이 세상풍파를 헤치며 걸어간 인생길도 있으며 사회력사가 흘러오면서 남겨놓은 력사의 길,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과정에 열어진 자연개척의 길도 있다.

인간사회가 가는 길은 그 주체인 인민대중이 열어나가는 길로서 그것은 환경과 조건에 그저 순응하는 길이 아니라 그 구속을 반대하여 나가는 길, 자주의 길이다.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이며 그것으로 하여 사회력사는 인민대중이 요구하는 방향,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가기마련이다.

인민대중은 사회력사를 개척한 첫날부터 자연계의 존재들처럼 자연조건과 환경에 그저 순응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자연물과 근본적으로 달리 온갖 구속과 예속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왔다.

이 과정에 인민대중은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 자주의 길을 열어놓았으며 그 길을 따라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고있다.

그러면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열어놓은 길, 자주의 길은 어떻게 생겨났을가

그것은 그들이 간직한 세기적념원에 그 발단을 가진다.

세기적념원

사람은 사회를 만들어 놓으면서 수많은 꿈, 념원을 간

직하게 되였는데 이중에서도 자주의 념원은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져 착취하는자와 착취받는자가 생기면서부터 더욱 강렬해지기 시작하였다. 계급사회가 존재한 전기간 인민대중이 간직한 소원들중에서 가장 강렬한것으로 간직되여온것은 자주의 념원이였다.

인민대중이 간직하여온 념원은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자주의 념원처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소중히 자리잡은것은 없었다.

하여 여기에서 우리는 우선 자주의 념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좀 언급하자고 한다.

자주의 념원, 그것은 력사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숭고한 념원이다.

자주의 념원에는 예속과 지배, 굴종, 타협이 없다.

그것은 남을 지배하거나 남에게 굴종하며 또 자주권을 유린당하면서까지 비굴하게 타협하는것과는 전혀 인연이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전에 이 세상에 남에게 예속되여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늘 말씀하시군 하시였다.

여기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지난날 인디아에서 독립운동이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한 독립운동가는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 영국이 인디아에서 손을 떼면 인디아사람들은 더 어렵게 살게 될터인데

그래도 독립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독립운동가는 대답하기를 설사 우리가 잘 살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끼리 사는것이 좋으니 영국은 인디아에서 물러가라고 했다.

민족적독립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적지 않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와 민족이건간에 오직 바라는것은 자주이지 예속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자주의 념원은 그것을 실현해주는 리상사회를 세우려는 강렬한 지향이다.

인민대중은 일찍부터 자주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참답게 실현해주는 사회, 온갖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평등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리상사회를 그려보았었다.

예속과 압박이 없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는 념원을 갈망하여 인민대중은 때로는 신선의 나라에 가보려고도 하였으며 신의 천국을 그리면서 종교적안식속에 잠겨있기도 하였다.

《률도국》이요 《천국》이요 하는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어느것이나 다 허황하기 그지없는 꿈에 지나지 않았고 그곳에는 선량한 신선이나 자비로운 하느님이 아니라 그 탈을 쓴 착취자, 지배자들이 군림하고있었다.

하기에 그들은 이 모든것이 나쁘다는것을 깨달았고 착취계급과 제도를 반대하여 싸웠다.

인민대중의 자주의 념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공동의 념원일뿐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강렬해지는 념원이다.

그 념원은 수천년의 세파에 부딪쳐 시련을 겪긴 하였어도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력사가 흐를수록 더욱더 가증되고 폭넓게 전개되였다.

지난 시기 착취계급들은 온갖 감언리설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무마시키거나 없애버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다하였다. 감언리설로 그들을 달래거나 그것도 안되면 폭력의 방법을 쓰기도 하였으며 그들을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에로 이리저리 끌고가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 모든 시도들은 그들의 자주의 념원에 부합되지 않은것으로 하여 모두 부정되였으며 그들의 거세찬 자주적인 투쟁과 항거에 의하여 사라지군 하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의 념원은 이렇듯 지배와 예속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회진보를 위한 투쟁속에서 더욱 굳세여지고 강렬해지는 념원이다.

주체사상은 바로 인민대중이 바라고 바란 자주의 념원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자기의 사상리론의 중심에 놓고 그 실현을 자기의 근본사명으로 내세웠다.

그뿐아니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길, 사회주의 길까지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하여 주체사상은 자주의 사상으로서 세계에 빛을 뿌리게 되였으며 오늘은 온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따르면서 열렬히 신봉하는 세계적

인 사상으로 되였다.

한때 종교가 세계적으로 퍼지였지만 주체사상이 오늘 그에 대비할바없이 온 세계를 자주로 물들이며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신봉자대렬이 늘어나고있으며 세계적규모에서 수많은 나라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것은 그것을 웅변적으로 증명해주고있다.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 자주의 길을 따라 나가는것은 오늘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사회개조에 자주의 활로가 있다

여기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령역들과 그 호상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된다.

자주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그것은 복잡다단한 여러 고비들을 넘어가야 하는 험난한 길이다. 이 길에는 엄혹한 자연의 구속도 있고 불합리한 사회제도의 구속도 있으며 인민대중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문화적질곡도 있다.

인민대중은 이러한 자연과 사회, 자기자신의 구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3 대분야에서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을 통하여 인민대중은 계급적

및 민족적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며 자연과 인간을 개조하는 투쟁을 통하여 인민대중은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 및 사상문화적조건을 마련하게 된다.

력사적사실은 인민대중이 벌리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운동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력사상 자주성을 위한 피압박근로대중의 첫 진출이라고할수 있는 노예폭동과 중세기농민들의 반봉건투쟁으로 말미암아 노예제도와 봉건제도가 붕괴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한편 자연개조, 인간개조를 위한 투쟁속에서 물질적재부들과 사상문화적재부들이 수많이 축적되여 몽매와 무지에서 훨씬 벗어나게 되였다.

이처럼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기 위한 모든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로 지향되여왔다.

그러면 이 3 대개조는 어떤 순차성,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는가. 그것은 사회력사적실천의 요구에 따르는 일련의 순차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3 대개조의 순차성은 매 력사적시대와 해당 사회가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그 선후차를 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시대와 환경을 고려함이 없이 그저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회개조사업이 모두 동시에 진행된다고 리해하거나 기계적으로 어느 하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른 하나가 진행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사회발전의 실천적과정으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문제를 설정하여 고찰해보자.

사회주의혁명을 하는 시기에는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 다시 말하여 사회개조문제가 전면에 나서게 된다.

그것은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주되는 질곡이 계급적 및 민족적지배와 예속에 있기때문이다. 지배와 예속의 사회관계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자연개조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은 자기의 로동의 결과를 향유하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처지에 있게 된다. 인민대중이 사회정치적으로 구속되여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그 어떤 자연개조사업에도 관심을 가질수가 없다. 따라서 선차적인 사업은 사회개조를 위한 사회혁명에 귀착되게 된다.

사회혁명으로 착취제도가 청산되고 진보적인 사회제도,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면 자연개조사업, 인간개조사업에 보다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됨으로써 동지적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된다.

착취사회가 뒤집어지고 사회주의사회가 서게 되면 지배계급, 착취계급이 계급으로서 청산되고 계급적대립이 없어지며 친선적인 두 계급인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근로자들은 다같이 사회주의근로자로서 서로 리해관계가 일치하며 따라서 동지적협조와 단결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인민대중이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과업을 전면에 제기하고 수행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여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외국의 벗들과 만나하신 이야기들중의 하나를 하려고 한다.

그것은 산업혁명과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이다.

1981년 10월중순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소장 티, 비, 무케르지를 단장으로 하는 인디아학자대표단을 접견하신 자리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시아나라들은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여 유럽나라들에 뒤떨어지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아시아나라들이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다나니 결국은 발전된 나라들의 식민지로 되고말았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무케르지의 무랍없는 청을 받으시고는 지난날 아시아나라들이 산업혁명을 하지 못한것은 봉건통치제도가 너무 강했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강한 봉건통치제도가 사람들이 창발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가혹하게 억제한데 있다고 근엄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강한 봉건통치제도에 의한 사람들의 창발성의 억제.

지난날 아시아나라들이 세계적인 흐름에서 뒤떨어졌던 원인을 단마디로 명철하게 파헤치시는 그이의 이 말씀에 무케르지는 환성이라도 지르고싶은 심정이였다.

그이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사회개조는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활로를 여는 관문이라고 할수 있다. 사회개조를 하여야 자연개조, 인간개조사업이 아무런 사회적구속을 받음이 없이 유리하게 진행될수 있다.

사회개조는 근본에 있어서는 사회주의혁명이다.

그것은 사회주의혁명을 내놓고 그 이전의 그 어느 혁명도 그만큼 조건과 환경을 지어주지 못하였기때문이다. 봉건제도는 말할것도 없고 자본주의사회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것으로 하여 그 개조와 발전의 길을 가로막는다.

사회주의만이 그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준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자연개조사업과 인간개조사업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하여 수행되며 사회개조사업은 혁명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시대적흐름, 온 세계의 자주화

오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하나의 시대적흐름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를 힘있게 떠밀어나가고있으며 자주성의 세찬 조류가 세계의 모든 대륙을 휩쓸고있습니다. 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

자주의 길은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

현대력사의 본질적특징을 명철하게 꿰뚫어보시고 지적하시는 그이의 이 말씀은 참으로 지당하다.

실지 현대력사를 둘러보면 민족국가를 이루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지향하고있으며 세계적범위에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세차게 전개되고있다.

일찌기 맑스에 의하여 개척된 로동계급을 비롯한 피압박인민대중의 해방위업은 20 세기에 와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었다. 그후 맑스의 위업에 충실하였던 레닌은 레닌주의를 내놓고 그 기치밑에 사회주의 10 월혁명을 이끌어 마침내 지구상에 첫 사회주의국가를 세웠다.

사회주의가 출현하여 오늘에 이르는 기간 세계혁명위업수행과정에는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승리적으로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세

계적범위에서 식민지체계가 붕괴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구현한 반제민족해방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 세계평화애호운동이 더욱 폭넓고 심도있게 전개되여왔다.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력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제국주의에 유리한 시대인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멸망이 가까와오고있으며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력사적전환의 시대이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이 세계를 마음대로 좌우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오늘 세계정세의 흐름을 주도하는것은 온갖 착취와 억압,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친선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자주위업이다.

자주화가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지만 그것을 자연의 강물이 흐르는것처럼 그대로 방임해두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련합된 세력으로 자주화의 흐름을 막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이로부터 세계진보적인민들은 단합된 력량으로 세계적범위에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주동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다시말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바로 여기에 온갖 침략과 전쟁을 막고 평화와 진보, 자주성을 실현하는 참다운 길이 있다.

주체사상에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화된 세계는 지배와 예속, 간섭과 압력이 없는 세계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세계이다.》

온 세계를 자주화한다는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 어떤 렬강이나 지배주의세력에도 예속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며 철저히 자주적인 길로 나간다는것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는 인류공동의 위업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자면 자기의 자주성이 짓밟히는것도 반대하여야 하지만 남의 자주성을 짓밟는데 대하여서도 반대하여야 한다.

이웃집에서 일어난 불을 끄지 않으면 자기 집에 불길이 번져올수 있다는것은 초보적인 리치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와의 투쟁을 동반한다. 꽃밭에 독초가 있으면 그것은 못쓰게 되기마련이다.

제국주의, 지배주의는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재난과 불행의 화근이다.

제국주의, 지배주의가 있는한 세계는 평화로울수 없고 인민들은 자유로울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남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으며 때로는 파렴치한 무력침공도 서슴치 않고있다. 이로말미암아 세계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란폭하게 유린당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결코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그러므로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온세계가 자주화되면 새 세계전쟁이 방지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질수 있으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된다. 이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될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온 세계의 자주화를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내세우고 투쟁하는것도 이 때문이다.

위대한 자주의 사상인 주체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온갖 착취와 억압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인류의 세기적념원은 반드시 실현되게 될것이다.

3) 인류력사는 고요한 오솔길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데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이라는 원리가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을 밝혀준다면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 원리는 사회력사적운동의 성격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입니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것은 이 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자연과 사회가 개조변혁되고 인민대중자신이 힘있는 존재로 자라나는 과정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전진한다.

자주를 향해나가는 인류력사의 길은 정적이 깃든 고요한 오솔길이 아니다. 울창한 수림이 앞을 막아나서는가하면 늪과 수렁, 험한 가시덤불이 적지 않다.

이 험한 지대를 돌파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헤칠수 있

는 힘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없으면 인민대중의 발목이 잡혀 전진을 이룩할수 없게 된다.

그것을 헤쳐나가자면 힘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연과 사회,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것을 없애고 자주성을 실현하는 사업은 거창한 사업이며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자면 창조적활동을 벌려야 한다.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창조적활동을 벌리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자주성실현에 들어맞는 명약처방은 창조라는 무기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민대중의 창조활동과정이 순풍에 돛을 단 배의 경우와 달리 투쟁을 동반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게 된다.

지난날 인민대중이 곡절많은 길을 걸어오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력사를 전진시키기 위한 그들의 창조적활동이 투쟁을 동반하였기때문이다.

투쟁을 떠나서는 낡은것이 없어질수 없으며 새것의 창조가 이루어질수 없다.

특히 낡은 사회제도를 새로운 사회제도로 바꾸고 인민대중의 사회적해방을 이룩하여나가는 과정은 치렬한 계급투쟁과정이다.

낡은 제도, 낡은 세력을 보존하려는 세력은 스스로 자

기 자리를 내놓지 않는다.

낡은 세력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새 제도,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는것이다.

조선에서의 항일무장투쟁경험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이 지난 세기 초엽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된후 그 해방을 애타게 갈망하며 애국지사들은 《조선독립에 관한 청원서》를 들고 빠리로, 헤그로 분주히 오가면서 청원도 해보았고 애타게 절규도 해보았으며 적수공권으로 거리에 떨쳐나서 목청껏 만세도 불러보았지만 차례진것은 감옥이고 교수대이며 랑자한 피바다뿐이였다.

조선에서와 마찬가지의 현상은 인디아에서도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실의 하나가 마하르따 간디의 비폭력불복종운동이였다.

그가 주장한 비폭력불복종운동의 골자는 《사피아 그라하》(비폭력)운동이였는데 그것을 보면 단식, 채식주의, 불살생, 비폭력, 금욕 등의 형태들이였다.

폭력으로 향해오는 권력에 대하여 비폭력으로 맞서자 행동과정에 곤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경찰에게 설사 머리가 깨지고 피흘리며 쓰러진다해도 누구도 전진을 멈추거나 쓰러지지 말자, 넘어진 사람을 대신하여 다음 사람이 계속전진해나가자.

적의 무자비한 철권앞에서 적수공권의 맨손으로 맞서는 그 광경은 자못 영웅적인것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으르릉거리는 승냥이앞에 선 연약한 토끼의 처지와 다른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산채로 먹히우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폭력에는 폭력에로, 무장에는 무장에로 이 길만이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은 평화적방법으로는 안되며 오직 인민대중의 혁명적폭력의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교훈으로부터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 당시로서 이것은 그야말로 대담한 선언이였다.

일제로 말하면 발톱까지 무장한 대군이였는데 화승총하나 변변한것이 없는 처지에서 어떻게 그를 타승한단 말인가.

그러나 조선의 혁명가들은 확신하였다.

인민대중을 하나로 궐기시키고 군사를 키우고 무기를 마련하여 싸우면 제아무리 강적이라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이였다. 하지만 실지 그 싸움은 참으로 간고한 싸움이였다. 무엇보다도 력량대비에서 엄청난 싸움이였다.

그 차이가 하도 엄청나 사람들은 사마귀가 팔을 벌려 수레바퀴를 막아나서는 격이라고도 하고 일제는 항일유격대를 가리켜 《창해일속》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간에 조선인민은 두려움없이 도전해나섰다.

단행하면 귀신도 길을 낸다는 말이 있다.

무장을 들고 결사의 각오로 싸우니 방법도 생기고 길도 트이게 되였다.

밀림속의 병기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때 일부 사람들은 멋도 모르고 쏘련사람들의 도움으로 유격근거지에 수류탄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계획하고 쏘련에 청원하였다.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쏘련을 인류해방의 등대로 경건하게 우러러 볼 때였다. 그런데 쏘련측에서는 그 청원에 아무런 회답도 보내주지 않았다. 청원을 해결해주겠다는 약속도 없었고 해결해주지 못하겠다거나 해결할수 없다는 통지도 없었다.

이 사실을 놓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을 해야 하겠다는 강한 결심을 가지시였다.

유격대와 인민들을 동원하여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하여 병기창을 꾸리고 무기제작에 필요한 공구들과 화약들을 자체로 만들어 보장하도록 하시였다.

그때를 회고하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은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사에서 처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

이 생기발랄한 시대상은 인민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동시켜 세상만사를 다 풀어나가는 공산주의적방

법이 정당하고 위력하다는것을 실증해주는 산 화폭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인류력사에 대한 고전적인 정식화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인류발전의 력사를 계급투쟁의 력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물론 정당한 규정이다. 인류력사는 계급투쟁의 력사인 동시에 자기 발전의 력사, 자기 창조의 력사, 자기 완성의 력사라고도 말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인류가 자기자체에서 사람에게 고유한 힘과 재능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련마해온 창조의 력사이며 동시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다.

인류력사는 또한 자기를 정치사상적으로, 문화도덕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부단히 세련시켜온 혁신의 력사라고도 할수 있다. 인류는 이런 창조와 혁신의 힘으로 오늘날의 로케트시대, 콤퓨터시대, 유전자공학의 시대, 록색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인간이 만일 자기 힘을 계발시키지 않고 천지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그 어떤 신이나 하느님의 은총만을 믿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석기시대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

항일전이 전개됨에 따라 군대도 무기도 늘어나고 경

험도 쌓아져 항일유격대는 결코 만만치 않은 강력한 무력이되였다. 그 존재를 두고 일제는 《동양평화의 암》이라고 비명을 올리였으며 마침내는 그 《암》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이렇게 되여 조선에서 해방이 이룩되였다.

참으로 많은것을 되새겨주게 하는 이야기이다.

자주는 신선의 나라에서 열리는 열매는 결코 아니다.

자주를 하려면 창조와 변혁의 무기를 높이 들어야 하며 바로 그 무기를 인민대중이 자체의 힘으로 얻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명언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한다.

《력사는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를 동정하고 약한 나라 인민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선사한 전례를 알지 못한다. 한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그 민족자체의 주체적인 노력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서만 보존하고 쟁취할수 있다. 이것은 여러 세기와 세대를 거쳐 이미 력사에 의해 검증된 진리이다.》

우리 모두 이 진리를 명심하자.

4) 력사를 떠미는 위대한 견인력-자주적인 사상의식

우에서 인민대중이 주체로 되여있는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이야기하였다. 사회

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진행되는 운동이다.

그러면 인민대중을 사회력사적운동에로 떠밀어주는 힘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인민대중을 사회력사적운동에로 내세우고 투쟁하도록 떠밀어주는 힘을 추동력이라고 한다.

주체의 사회력사원리는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이 추동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추동되고 승리합니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간다.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이 추동되게 된다.

인공지구위성의 추진력을 두고

2012 년 12 월 12 일 조선에서는 세계를 들었다놓으며 평화적인공위성인 《광명성-3》호 2 호기가 성과적으로 발사되였다.

이전에 조선에서는 주체 87(1998)년 8 월 31 일 첫 인

공지구위성인 《광명성-1》호가 발사되였으며 2009년 4월에 두번째로 되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발사되였다. 《광명성-3》호 2호기 발사로 조선은 당당한 우주개발국이 되였고 조선의 실용위성이 우주를 날게 되였다.

조선은 앞으로 수많은 실용위성들을 발사하는 우주강국을 지향하고있다.

지금 지구둘레에는 수많은 위성들이 돌고있는데 그 수만 하여도 거의 만개나 된다고 한다. 이 수많은 위성들이 어떻게 되여 지구주위를 돌고있는가, 그 추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을것인가.

일반적으로 위성이 우주궤도에 진입하자면 시초에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 지구인력에 대항하는 원심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제정된 우주궤도에 들어서 지구주위를 주기적으로 돌면서 여러 기능 즉 기상, 통신, 탐측, 예보 등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다.

궤도의 형태와 높이는 운반로케트의 추진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로케트의 추진력으로 궤도에 진입한 위성들은 해당한 자리길을 따라 돌면서 자기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이 위성발사의 일반적인 원리이다.

여기에서 인공위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는것이 아니다.

위성이 자기의 궤도에 들어서서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자면 추진력을 얻어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인류력사

도 인민대중이 요구하는대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길을 따라 가자면 그 길로 떠밀어줄수 있는 추동력이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주체사상은 그 추동력을 새롭게 밝혀주고있다.

한 외국인과 하신 담화

여기에 말하려고 하는 담화는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1992년 3월 31일 일본 《아사히신붕》 편집국장이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그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신 내용에 대한것이다.

그때 편집국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멀지 않아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김일성**주석께서는 60여성상 조선혁명을 령도하시고 세계혁명에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습니다. 이 과정에 가장 깊이 느끼신 문제들은 어떤것들입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그가 조선을 소개하여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신 다음 그의 질문에 대답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신들이 다 아는바와 같이 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

중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왔습니다. 이 과정에 많은 시련과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영원히 잊을수 없는 기쁜 일과 가슴아픈 일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 …내가 말하고싶은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인민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높이는데 선차적으로 주목을 돌려야 한다는것입니다.

…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물론 객관적조건과 환경도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사람이 결정적역할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결국 사람의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흔히 사람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그 창조력을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는 많이 강조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의식이 더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주의가 적게 돌려지고있습니다. 사람의 창조력도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활동할수 있는것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인간의 창조력의 발전에 끝이 없는것처럼 자주적사상의식의 발전에도 끝이 없습니다.》

참으로 뜻이 깊은 말씀이다.

그이의 한생의 귀중한 경험이 함축되여있는 이 뜻깊

은 말씀에는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이 생활적론리로 명백히 천명되여있다.

창조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의식이 더 중요한 작용을 한다. 때문에 인민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높이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려야 한다.

그러면 사상의식이 창조력보다 왜 중요한가 하는데 대하여 보기로 하자.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회적운동을 벌려나가면서 그것을 파악하고 개조하는 능력으로서의 일정한 창조적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가 가지고있는 창조적능력을 발휘하는데서 그 방향과 정도가 서로 차이나는것을 볼수 있다.

같은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최대로 발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적당히 발휘한다. 한편 그것을 사회적진보와 선진계급의 리익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사회발전을 저해하거나 착취계급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다.

그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그가 가지고있는 사상의식이 다른데 있다.

보면 사상의식은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것이라면 과학기술지식으로 대표되는 창조적능력은 사물현상의 본질과 운동법칙을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

이다.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활동의 목적과 방향, 투쟁에서 발휘되는 의지와 투쟁력을 규제하게 된다. 창조적능력은 그것을 담보해주는데 그것은 사람이 내세운 목적과 방향, 의지와 투쟁력에 따라 일정한 방향에서 이러저러하게 발휘된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있는 지식과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쓰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가 가지고있는 사상의식이 어떤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원자핵이 분렬될 때 막대한 에네르기가 나온다는것은 원자라는 물질자체의 성질을 반영한 지식이지만 원자에네르기를 전기를 일으키는데 쓰겠는가 아니면 폭탄을 만드는데 쓰겠는가 하는것을 결심하는것은 원자에네르기에 대한 사람자신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인것이다.

이런데로부터 사상의식은 창조적능력보다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사람들의 활동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것이다. 물론 사람의 활동에서 지식도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하는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식은 어디까지나 사상의식의 규제밑에 사람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

이로부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의식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마는 창조적능력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고 하신것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운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합니다.》

인류와 력사발전을 다그치는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상은 다름아닌 자주적인 사상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은 자기 운명을 지배하는 존재가 자기자신이라는 확고한 인식이다.

다시말하여 사람의 운명은 《하느님》이나 《왕》, 그리고 그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좌우지되는것이 아니라 사람자신에 의하여 지배되고 결정된다는 인식이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끝까지 개척해나가려는 각오와 결심이다.

다시말하여 남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처지와 운명을 구원하는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운명을 끝까지 개척해나가려는 불굴의 정신이다.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결정

적역할을 하는것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은 다음과 같은 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과 사회에 대하여 옳바른 태도와 립장을 가지고 그를 변혁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지난 시기 와트의 증기기관이 새로 나왔을 때였다.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의 시초를 열어 놓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한 기계였다.

자본가들은 당시 이 기계를 가지고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로동자들의 피와 땀을 더욱 가혹하게 짜내였다. 그리하여 로동자들은 하루 15 시간이상 고된 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생산물은 이전에 비할바없이 많이 나왔지만 그들에게 차례진것은 최저생활비도 못되는 극히 적은 임금이였다. 그래서 로동자들은 《새로운 기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고생하고 못사는 원인이 기계에 있는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기계를 마스는 투쟁이 벌어지게 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로동계급의 《기계파괴운동》이였다.

한편 기계를 독차지하고 있던 자본가들은 정부의 힘을 발동하여 《기계를 부시는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엄한 법률을 공포하고 로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이것을 목격한 로동자들은 기계를 부시는것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개선할수 없다는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로동자들은 기계가 아니라 자본가들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하겠다는것을 인식하고 로동시간을 단축하며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자본가들과 맞서 싸웠다. 그리하여 로동자들은 때로는 로동시간을 조금 단축하기도 하고 임금을 올리는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것으로서도 로동자들의 처지는 근본적으로 개선될수 없었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은 국가정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여전히 로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었기때문이였다.

로동자들은 세월이 가면서 점차 자기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면 개별적인 자본가가 아니라 자본가전체를 반대하며 자본가들이 의거하고있는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어야 한다는 자주의식으로 무장하게 되였으며 마침내 조직적인 투쟁에 떨쳐나 자본주의사회를 전복하고 사회주의사회를 세울수 있었던것이다.

이러한 력사적사실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와 력사에 대한 옳은 립장을 가지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함으로써 력사발전을 적극 추동한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또한 혁명운동에서 발휘되는 사람들의 의지와 투쟁력을 규제하는것을 통하여 혁명운동

을 적극 추동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와 투쟁력을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사상문제이다. 대중의 혁명적능력은 무궁무진하지만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높이 발양될수 없다.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군중은 착취와 압박을 받아도 혁명투쟁에 일떠설수 없고 혁명투쟁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그마한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앉게 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한 대중만이 혁명투쟁에서 견결한 립장과 태도를 취할수 있을뿐아니라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혁명투쟁에 적극 참가하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투쟁할수 있다.

사상의 강자가 많은 나라-조선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마다 제나름의 자랑거리를 가지고있다. 세계에는 원유자원이 풍부한것을 자랑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광대한 령토를 자랑하는 나라, 경제와 기술이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도 있다.

조선은 어떤 나라일가.

조선은 사상의 강자가 많은것으로 하여 세상에 자랑높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을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로 내세운 조선은 오래전부터 사상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돌려왔다.

앞에서 보았지만 사상이 창조적능력보다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력사의 진리이다.

물론 정보산업시대에 들어선 오늘 콤퓨터를 비롯한 정보과학기술에 능통한 과학기술인재들을 많이 키워내기도 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그렇다고 하여 사상을 소홀히 하면서 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지 않게 되면 품들여 키워낸 인재들이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도 모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자기 나라의 부강을 위해 열성을 내여 일하는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안락과 향락만을 위하거나 지어는 다른 나라를 넘겨다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길로 나가게 된다.

사상의 빈곤은 정치의 빈곤과 파멸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지난 세기 사상사업을 바로 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망한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실태는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사상을 중요시하고 그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은 지나온 20 세기력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진리이다. 력사의 이 귀중한 진리가 옳바로 심어진 나

라가 바로 사회주의조선이다.

조선에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하여오는 과정에 수많은 사상의 강자들을 키워냈다.

주체사상이 창시된 때로부터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조선혁명의 력사에는 유명무명의 사상의 강자들이 수없이 기록되여있다. 항일무장투쟁때에 항일혁명투사들이 수많이 자라났으며 조국해방전쟁때에는 수많은 용사들이 자라나 영웅조선의 이름을 떨치였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특히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겪던 지난 세기 90 년대에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무장한 수많은 사상의 강자들이 자라났다.

이러한 사상의 강자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으로하여 조선은 20 세기에 이어 21 세기에도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다하면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인류사회를 밝히는 홰불

집필: 오성철

낸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인쇄: 주체 103(2014)년 2월 15일

발행: 주체 103(2014)년 2월 25일

ㄱ-35166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

조선 · 평양

주체103(2014)년